

# 濟州民謠 시집살이 노래 研究

梁 永 子\*

목 차	
1. 서 론	4. 표현상의 특징
2. 전승양상	5. 내용상의 특징
3. 전개유형과 구조	6. 결 론

## 1. 서 론

### 1-1. 연구의 목적

민요는 민속예술이자 구비전승물로 전승지역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살아있는 문학이다.

제주도 민요에는 여성의 사상이나 감정이 반영된 여성노동요가 많다는 것이 특징인데, 여성노동요가 사설이 풍부하고 양과 질에 있어서도 빼어나 문학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제주 여성의 일은 집일, 밭일, 물질에 이르기까지 두루 걸쳐 있어서 여성 삶의 전반은 늘 노동에 바쳐졌고 일어난 곳에는 항상 일노래가 불려졌다. 여성들은 노래를 통해 노동의 고통을 잊

\* 탐라문화연구소 연구회원

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괴로움과 고통을 극복해내는 지혜를 스스로 얻어냈던 것이다. 그런데 많은 여성요에는 여성삶의 애환을 노래하는 사실이 쏟아져 나온다. 사실의 대부분은 시집간 여자가 겪는 생활고, 서러움, 절망 등의 신세 한탄과 저항의지, 소망들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평민 여성들의 삶을 진솔하게 표현했던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의 기능과 존재양상을 통해서 그 문학과 사회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의 업적을 바탕으로 하여 사실의 유의성을 중심으로 한 문학적 연구에 치중하고, 이를 통해서 제주도 여성요의 총체적 접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민요 작품의 전체적 양상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작품으로 되기까지의 구연상황이나 청중의 반응, 전승실태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의 출발은 시집살이노래의 기능과 그 존재양상을 살피는 것에 놓여질 것이다.

2장에서는 제주도 시집살이노래의 장르적 성격으로 서정적, 서사적 두 전개 유형을 살피고, 시집살이노래의 구조적 특징을 통한 각편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3장에서는 시집살이노래의 문학적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시집식구들을 비유하는 소재와, 여성들의 미적 체험을 통해서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의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시집살이노래에 나타나는 내용상의 특징으로 시집살이 노래가 갖는 사회적 성격을 살필 것이다. 그래서 시집살이노래에 드러나는 가족의식과 사회적 상황을 살피고, 여성들의 현실인식과 신세한탄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피려고 한다.

이 연구를 위한 자료로는 최근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된 1차 자료와<sup>1)</sup> 이미

1) 얼마전부터 민요찾기 운동이 전개되어 오고 있는데 1989년도에 이미 MBC 한국민요대전이 제주에서 맨처음 실시되었는데 이때 많은 민요가 채록되었고

채록되어 자료집에 실려있는 노래 중에 제주지역에서 불리웠던 시집살이노래를 연구대상으로 활용하였다.

활용한 자료집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조선민요선」. 임화. 학에서. 1939.
- 「조선민요집성」.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정음사. 1948.
- 「조선민요연구」. 고정옥. 수선사. 1948.
- 「제주도민요선」. 김영삼. 중앙문화사. 1958.
- 「한국민요집」 I, II, IV. 집문당. 1961. 1974. 1979.
- 「제주도민요해설」. 홍정표. 성문사. 1963.
- 「남국의 민요」. 진성기.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 「한국구비문학대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한국의 민속음악 : 제주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제주도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주도. 1986.
- 「학술조사보고서」 제7집, 8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1982, 84.
- 「국문학보」 제8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6.
- 「백록어문」 제1집, 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86, 87.
- 「제주도부라지」 I.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 「제주도부라지」 II.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1.
- 「제주의마을」 시리즈. 오성찬, 도서출판 반석. 1990.

### 1-3. 연구사

우리나라의 민요 연구는 高晶玉에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다. 그는 모든 것이 “안해” “머느리” “어머니”로서의 생활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었던 만큼 婦女에게 있어서 생활의 핵심은 시집살이에 있다고 하였으며 시집살이노래야말로 婦謠의 중심이며 한국민요의 精華라 하였다.<sup>2)</sup>

이어 任東權은 內房民謠를 통해 부녀생활을 파악하고자 文學的, 民俗學的 접근을 시도한, 6편의 논문을 모은 「韓國婦謠研究」에서 시집살이노래를 “여

---

시집살이노래도 다수 채록되었다.

2)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9.

성문학을 대표하는 서민내방문학”으로 평가하고 있다.<sup>3)</sup>

金榮敦은 사실의 機能 有無를 기준으로 하여 勞動謠와 非勞動謠로 나누었는데, 시집살이노래는 민간의 실태와 생활의식에 쏠리며 제주도 여성민요의 핵심이라고 보았고, 문학적 향훈이 짙은 맷돌·방아노래에 포함된다고 보았다.<sup>4)</sup>

그런가 하면 趙東一은 시집살이를 내용으로 하는 叙事民謠를 대상으로 하여 민요를 장르론, 유형론, 문체론, 전승론으로 나누어 논의함으로써 민요 분류와 분석에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학적 문제까지 접근하고자 하였다.<sup>5)</sup>

이외에도 시집살이노래를 연구한 업적들이 더러 보인다.

박영원은 시집살이노래의 발생요인과 형식, 내용을 구비문학적 견지에서 고찰하고 있다.<sup>6)</sup>

李光奎는 가족원의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외적형태에 따라 시집요, 형님형님 사촌형님요, 살림요, 고된살이요, 친정생각요, 꼬덕각시요, 남편요, 시누이요로 분류해서 분석한 바 있다.<sup>7)</sup>

姜騰鶴은 서사민요 각편의 구성을 시집살이노래를 중심으로 하여 살피고 있다.<sup>8)</sup>

羅承晩은 서사적 구조를 가진 吟詠民謠의 유형구조와 문체적, 문학적 특질을 통해서 민요가 지닌 문학적 가치를 구명하고자 하였다.<sup>9)</sup>

張成鎭은 재물의 손실, 노동력의 부실, 애정의 손실 등 동기별로 유형을 분석하고 인물의 특성을 구명하고 있다.<sup>10)</sup>

3) 임동권, 《한국부요연구》, 집문당, 1982.

4)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 여성노동요를 중심으로》, 조약돌, 1983.

5)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출판부, 1979.

6) 박영원, “시집살이민요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6.

7) 이광규, “민요에 비친 시집살이”, 《한국문화인류학》 제12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0.

8) 강동학, “서사민요 각편구성의 일면”, 《도남학보》 5호, 1982.

9) 나승만, “음영민요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83.

10) 장성진, “시집살이요의 유형과 인물”, 《여성문제연구》 제13집,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84.

서영숙은 시집살이노래를 갈등의 문학으로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고 조선 후기의 내방가사와의 관련성까지 구명함으로써 평민여성문학으로서의 국문학사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sup>11)</sup>

이들 연구들은 시집살이노래의 내용상의 분류에서부터 갈등관계의 파악, 시집살이노래를 통한 사회상의 조명, 문학성 구명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 시집살이노래의 전승양상과 문학성, 사회적 의미를 살피고, 제주도 여성요의 특질을 밝히고자 한다.

## 2. 전승양상

### 2-1. 시집살이의 노래의 개념

시집살이는 현대사회에서 이미 낡은 용어가 되어버렸지만 폐쇄적 봉건사회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꼭 치러야했던 통과례와도 같은 것이었다. 출가에서 비롯되는 시집식구들의 횡포와 이를 합리화시킨 가족제도, 사회제도는 여성의 종속성을 강요했고 수많은 여성들이 눈물로 일생을 보내야 했으며 때로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했다. 三從之道, 七去之惡 같은 유교도덕률의 여러 조항은 여성의 자유로운 욕망이나 행위를 제약했고 이러한 사회배경의 필연적인 결과가 시집살이노래의 성격을 규정했다고 할 수 있다.

시집살이노래는 시집간 여자의 생활 주변을 읊고 있는데, 현실을 한탄하거나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극적인 반발을 보이면서 부당한 속박을 고발하고 항거하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여성생활을 솔직담백하게 토로해낸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노래는 여성의 제2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 이후를 다루고 있어서 여성 인생의 핵심을 읊었다고 할 수 있으며 양적으로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빼어나 여성요의 대표격을 차지한다고 할 수

11) 서영숙, "시집살이노래의 존재양상과 작품세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있다. 시집간 여자와 새로 형성된 가족원과의 관계나 실제의 갈등들이 노래를 통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집살이노래는 여성의 인간적인 삶을 방해하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등 시집식구들에 대한 적대적 정서의 표출로 나타난다. 그런데 시집살이는 남편을 매개로 형성된 가족관계이므로 남편과의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남편이 첩이라도 돌이는 날이면 여성의 생활은 더욱 심한 곤경에 처하게 되므로 남편이나 첩과의 갈등도 시집살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들과의 갈등이나 감정표출도 넓은 의미의 시집살이노래에 포함시켜 서술하고자 한다.

그러나 시집살이노래가 여성의 시집살이에 국한된 문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여성 인생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들을 대상으로 하며, 인생의 불행과 분수령 언저리를 노래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중대한 가정생활을 읊었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곧, 시집살이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세한탄, 생활고로 인한 고통, 사랑, 소망 등등 풍부한 생활감정의 폭을 보여준다. 그런데 시집살이노래는 여성생활의 불행을 여성 자신이 표현했다는 점에서 내방가사와도 같다고 할 수 있으나, 불행을 강요하는 도덕적 구속을 인정하지 않고 고발하고 항거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내방가사와는 다르다.<sup>13)</sup> 시집살이노래는 어떤 양반규수에 의해 불러진 작품보다도 훨씬 우수한 시정신의 발로라고 하겠다.

곧, 시집살이노래는 평민여성들의 생활감정을 토대로 표현한 즉생활적인 여성요이며 평민여성문학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 2-2. 시집살이 노래의 성격

민요는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 사소한 잡일마다 거기에 따른 일노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놀이를 하면서도 다채롭게 불러지는데, 그때마다 특이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생활의 구속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맘껏 신

12) 임동권, 《한국부요연구》, 집문당, 1982, p.17.

13)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편, 《국어국문학사전》, 신구문화사, 1970.

명풀이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고조시켜 주는 타령류의 노래가 있고, 장래 절차와 함께 상여소리나 달구소리 같은 의식요가 불려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순진무구한 어린이들은 메뚜기나 뱀, 잠자리 같은 곤충을 놀리면서도 노래를 불렀다.

제주도 민요에는 노동요가 월등히 많다. 제주도의 시집살이노래 역시 여성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노동요로서의 기능을 가지면서 불려졌는데, 주로 맷돌, 방아, 양태노래와 같은 비교적 장시간 이어지는 작업에서 구연자의 심정이나 情意를 노래했다. 대부분의 노래가 장형화할 경우는 거의 시집살이를 내용으로 하는 사실이 끼어든다. 특히 최근의 현지조사에 의하면 시집살이노래는 하나의 노동 기능에만 얽매이지 않고 거의 모든 노동요에서 불려지고 있음이 확인됨으로써 제주도에서 불려지고 있는 시집살이노래가 노동요적 성격이 강한 노래임을 입증해 주었다. 성산읍 수산1리 조사 때 강여운 아주머니가 발매는 소리에 시집살이 사실을 부르면서 "소리<sup>14)</sup>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고 한 말은 매우 의미있는 말이다.

시집살이노래는 성읍리(속칭 구렁뿔) 현지조사<sup>15)</sup>에서는 농부가, 어가리낭창, 달구소리에 나타나고, 조천읍 조천리<sup>16)</sup>에서는 이야흥에, 애월읍 애월리<sup>17)</sup>

14) 김무현은 《한국민요문학론》(집문당, 1987)에서 노래(歌)란 '놀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유희성이나 오락성을 그 근원으로 가지고 있기에 민요의 본질상 합당하지 않은 반면, 소리란 우선 민중들이 '소리한다'고 불려왔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소리요, 삶의 소리인 동시에 바람소리 물소리와 함께 자연의 호흡으로, 상층인들이 미천하게 여기던 인위성이 가미되지 않은 민중의 육성이며 민성이기 때문에 謠는 소리로 풀고 歌는 노래로 번역함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 현지에서도 노래보다는 소리를 사용하고 있어 현지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를 존중해야 할 필요를 느끼며 소리를 쓰자는 의견에 동의한다. 이 논문에서도 여기에 준해 소리 혹은 소리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다만 현지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보다도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은 노래를 사용하였다.

15) 1989.4.23, 민요학회 조사.

16) 1989.11.11, 민요학회 조사.

17) 1991.5.12, 민요학회 조사.

성산읍 은평리<sup>18)</sup> 구좌읍 행원리<sup>19)</sup>에서는 발매는 소리 (검질매는 소리)<sup>20)</sup>, 성산읍 고성리<sup>21)</sup>에서는 도리깨질소리에, 서귀포시 법환동조사<sup>22)</sup>에서는 씨래질소리, 해녀노래(잠수소리, 물질소리)에, 애월읍 동귀리<sup>23)</sup>에서는 양태소리에 나타나는가 하면 베틀노래<sup>24)</sup>에 나오기도 한다. 제주도의 시집살이노래가 다양한 노동과 결부되면서 서정민요의 성격을 갖는 것은, 경상도의 시집살이노래가 길쌈노동요로만 나타나며 서사민요의 성격을 갖는 것과는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다. 어떤 노동현장에서는 자연스레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마련되면 여성들은 서슴없이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는데, 이는 여럿이 모여서 노동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생활의 고통이 노래로 해소될 수 있었음을 말해준다. 특히 제주도 시집살이노래는 특수한 공간을 배경으로 산출되고 농경, 어로작업과 밀착되어 왔으므로 노래의 전승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설도 지역성을 담으면서 전승되어 왔다. 그런데 산업화 현대화로 인해 맷돌, 방아, 베틀, 도리깨 등의 민속농구가 박물관에 가거나 볼 수 있고, 농약 살포로 김매는 작업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바다에서의 작업도 현저히 줄어든 요즈음 이런 노래를 듣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인위적인 환경을 제공해서 청해야만 들을 수 있는 실정인데, 간혹 노래를 부르다가도 “일허멍 허랜 현거주 안지난 소리가 안돼염쑤다”면서 중단해버리거나 구연상황을 미리 재현해 놓고 일동작을 해가며 부르는 것은 시집살이노래가 노동요적 성격의 민요임을 말해준다.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의 시집살이노래가 노동요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간혹 늘면서 부르는 타령류에도 나타나는데, 앞으로의 민요의 전승은 이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시집살이노래를 아는 노래층이 사라져가고 있는 데다 노동이 현저하게 줄었고 노래의 가락이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 
- 18) 1987, 국어교육학과 학술조사.  
 19) 1986, 국어국문학과 학술조사.  
 20) ( )속의 명칭은 현지에서 불려지고 있는 명칭이다.  
 21) 1987, 오성찬 제주마을 시리즈5집.  
 22) 1991.6.22, 민요학회 조사.  
 23) 1989.3, MBC한국민요대전 조사.  
 24) 《제주도부락지》 I,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게다가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시집살이에서의 고난 자체가 없어져가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고정적이고 유형적인 일부 사실만 남아서 창부타령이나<sup>25)</sup> 잡가에 끼어들게 된다. 몇년전 겨울, 필자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9일장을 치렀는데, 음식장만을 도우느라고 고생하시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마지막날 저녁에 창부타령 가락에 맞춰 시집살이 노래를 흥겹게 부르면서 너도나도 어우러져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었다. 이 신명나는 춤 한마당은 초상집의 쓸쓸한 분위기가라기보다는 신명을 돌구는 한마당이었고 한편으론 오래도록 가지지 않았던 체증이 가라앉는 듯한 한풀이었다. 노동요든 타령요든 노래가 갖는 기능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신명을 돌구어주고 삶의 활력을 주는 구실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집살이노래가 여자들의 모든 일상에 두루 걸쳐 있는 생활감정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때는 비기능적 요소가 있음을 무시할 수 없겠다. 개인적 신세한탄, 시집살이의 고됨이 진솔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종종 구연자의 생애력을 담고 있는 노래가 독백조로 음영되기도 한다. 이 경우 노래하는 자신의 경험담이 덧붙여지거나 상상력이 가미되어 노동의 기능과는 무관하게 장형화 한다. 사실의 문학적 내용이 풍부해지면서 충분히 흥미롭고 길어져서 서사화한다. 때로는 가공적인 흥미거리를 덧붙이는가 하면 극적 구성이 주는 감동까지 보태져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공감하게 된다. 그러나 서사화되는 시집살이노래를 제주민요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없고, 제주민요는 대부분 노동요로 전승되고 있다. 여러사람이 일제히 노동의 박자와 일치하는 노래를 부를 경우 구연자들이 노래에 몰입하게 됨으로써 서정민요가 많이 나타나는데, 제주도 시집살이노래는 서정민요로 많이 전승되고 있다. 김매는 작업이나 도리깨질, 잠수들의 배젓는 작업과 같은 노동요의 경우는 서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맷돌 작업이나 망건, 양태 작업은 비교적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고, 특히 이 작업들은 대부분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밤에 여인들에게 남겨진 작업들이었다. 고된 일의 연속은 여자들의 신세한탄으로 풀리게 되어 간혹 작업과 무관하게 서사적인 노래로 불러

25) 《구비문학대계》 9-3 대정읍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지면서 노동의 고통을 덜어주기도 했던 것이다. 구연자의 능력이 작용하는 것도 이 경우이다. 일의 고통을 덜고 노동의 지루함을 덜 뿐만 아니라 평민여성들의 생활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자기표현의 구실까지 시집살이노래가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 시집살이노래는 기능적, 비기능적 성격을 함께 가지면서도 특히, 노동의 기능과 관련되는 기능적 성격이 강한 노래이며 서정민요로 많이 불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육지의 시집살이노래가 비기능적이면서 서사민요로 불려지는 것과 다른 특징이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되고 나니 기능, 비기능의 구분이 모호해져버린 듯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시집살이노래는 기능, 비기능의 구분에다 노동의 수반, 비수반의 구분이 더 보태어져야 할 것이다.

### 2-3. 형식과 가창방식

시집살이노래의 전형은 <성님성님 사촌성님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님성님 사촌성님 시집살이 어떡데가”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제주도의 전역에 한결같은 내용으로 나타나는데 시집살이노래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고정적인 유형이다. 이 유형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전승 변이되는 과정에서 사실에 부분적인 차이가 있거나 지역성이 보일 뿐 동일한 이미지인 것으로 보아 시집살이노래의 한국적인 原形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집살이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면 누구든 전형적 반복 패턴인 사촌성님요를 부르며, 제주 지역에서는 거의 이 노래가 전승되고 있다.

제주도 시집살이노래는 대부분이 2음보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노동이 수반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노동의 어느 한 기능에만 한정되지도 않으며, 율격적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면 후렴이 수반되기도 한다. 이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시집살이노래들이 노동과 관련되지 않거나 노동의 기능이 한정적이고, 율격적 변화가 없으며, 후렴구가 없는 것과 비교할 때 제주도 시집살이노래가 갖는 특징이다. 노동요의 가락이 일의 경중, 일꾼이면서 동시에 소리꾼인 구연자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같은 사실의 노래일지

라도 방아노래에 비해 멧돌노래가 유장하게 불려지며, 같은 발매는 소리(사데소리) 일지라도 호흡의 길이에 따라 진사데, 중간사데, 쭈른사데 등 노동의 상황에 따라 다른 가락과 음보로 불려진다. 가락의 지배를 받는 사실 분석에 있어서, 거의 모든 노동현장에서 불려지는 제주도 시집살이노래는 어느 하나의 음보로 규정짓기 곤란한 어려움이 있다. 노동의 박자가 빠르면 가락도 빨라져서 도리깨질소리나 잠수들의 배젓는 소리 같은 경우는 급하게 노래되고 이런 노래일수록 후렴구도 일률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시집살이노래는 독창으로 불려졌을 때 서사적인 구조를 갖추며 불려진다. 구연자의 경험담이나 생애력이 가미되어 장형화하며 청중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이 경우이다.

구연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시집살이 사실이 이끌어지는 경우에는 주로 멧돌, 방아노래에 많이 나타난다. 멧돌작업은 한사람 혹은 두사람이 '고레체경'을 잡고 돌러가며 곡식을 가는 것이다. 이 경우 앞소리꾼이 사실을 잇고 뒷소리꾼은 "이여이여 이여도호라" "이연이연 이여도고레" 같은 후렴만을 반복하는 선후창으로 많이 불린다. 방아는 두사람이 마주서서 방아를 쥘면 "두쿨방아", 세사람이 하면 "식쿨방아"가 된다. 이 방아노래(남방애징는 소리)에도 "이여이여 이여도방애"가 후렴구로 들어갈 뿐 가락과 창법은 멧돌노래(고레는 소리)와 유사하나 노동의 박자가 빠르기 때문에 멧돌노래 보다 가락이 좀더 빨라진다.

발매는 노래(검질매는소리, 사데소리)의 경우는 "어긴여랑 사데 "엥허야 서와 데야" "엥허야 뒤야로구나", 해녀노래인 경우는 "이여싸 이여싸"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도리깨질소리인 경우는 "이여도 흥", 달구소리인 경우는 "어허 달구" 등과 같은 고정적 유형의 후렴구가 이어지는데 앞소리꾼이 시집살이 사실을 노래하고 뒷소리꾼들이 후렴을 받으며 이어간다. 앞소리꾼은 사실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후렴구를 한번 부르는 導唱을 함으로써 뒷소리꾼들이 받을 후렴을 환기시키는 것을 잊지 않는다. 후렴구들은 노동 리듬에서 연유한 것이기도 하지만, 유한한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대신한 시어라고 할 수 있다. 후렴구가 단순하게 반복된다는 것은 내용의 확실성보다는 관용적으로 노래되어온 전승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같은 노래일지라도 소리꾼

에 따라서 사설은 달라지지만 후렴은 달라지지 않거나 혹은 인근 마을일지라도 후렴에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가락이 공동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렴구가 있음으로써 일이 즐겁고 흥겨워지며 한편으로는 앞소리꾼이 다음 사설을 준비하는 시간적 여유도 가지게 한다. 또한 고정적 리듬의 반복은 굳이 사설을 부를 능력이 없는 소리꾼도 이 부분에 오면 함께 어우러짐으로 나갈 수 있고 신명풀이를 할 수 있는 집단의 공동체의식과 협동심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매우 합리적인 사고체제에서 비롯된 것이 후렴구이다.

시집살이 노래는 때로는 교창(교환창) 형식으로도 불리나, 사설의 넘나들이 많고, 부르다보면 사설의 혼동을 가져오게 되어 완전한 각편을 기대할 수가 없다. 교창은 댓구나 문답의 형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설과 가락이 앞소리꾼에 의해 통제되기 쉽다. 더욱이 댓돌노래와 같이 작업하는 사람이 2,3명일 경우는 교창이 가능하나 발매는소리, 달구소리, 상여소리, 잠수소리 같은 비교적 많은 사람이 무리지어 하는 공동작업인 경우는 앞소리꾼이 소리를 매기고 다수의 뒷소리꾼이 후렴을 받는 선후창의 형태로 불려질 수밖에 없다. 곧, 노동의 성격상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후렴 이상을 받기가 벅찬 경우나 구연상황에 따라 사설의 가변성이 높은 경우는 교환창이 불가능하므로 선후창의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민요는 다른 예술과는 달리 사설과 가락을 매체로 하는 열린 구조의 문학이기 때문에 생산과 수용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므로 사회성의 확보가 더 깊고 넓게 획득될 수 있는 열린 구조의 문학양식이라 할 수 있다.<sup>26)</sup>

#### 2-4. 구연상황과 전승

구비전승물이며 연행예술인 민요의 구연상황이나 전승양태를 살피는 것은 적잖이 어려운 작업이다. 노동의 기능이 쇠퇴하고 노래가 구연되는 자연조건

26) 임재해, 《한국의 민속예술》, 문학과지성사, 1988, p.263.

을 만나기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인위적인 조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번의 사전조사를 통한 관계형성이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서 조사자와 구연자의 rapport의 형성은 채록 성패를 결정하기도 한다. 민요와 같은 연행 예술은 민요를 부르는 활동 자체가 곧 창작이며 전승이자 수용이다. 그리고 민요는 생활현장에서 생산되고 전승되며 구연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이가 이루어진다.

제주도의 경우 대개 50대 중반 이상의 여성이면 시집살이 노래를 부를 줄 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아무데서나 불려지지 않고 친분형성이 이루어진 동질 집단 내에서 불리는 경향이 있다. 안덕면 덕수리 양미생 할머니(85세)의 경우 한 마을에 세 동서와 큰 시누이가 살고 있어서 노래 부르는 것을 조심스러워 했다.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을 배워서 뭐하겠느냐며 부르지 않다가 여러번 요청한 끝에 나중에야 마지못해 하면서 들려주었다. 남원읍 의귀리 조사에는<sup>27)</sup> 노래를 잘하는 60대 여인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시집살이 사설은 조금도 노래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시집살이 노래를 들려달라고 청했더니 민요의 사설을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은 하면서도 노래는 끝내 부르려고 하지 않았다. 한결같이 시집살이를 크게 해보지 않았고 그런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꺼려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중에는 사돈지간, 조카며느리, 친인척이 많이 끼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시집살이 노래가 여성내에서도 동질적 성격의 집단에서 불려졌던 노래이며, 또한 구연상황의 조건에 따라 가변적이 되는 연행문학의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민요는 여러사람이 재창조하고 전승하는 과정에서 그때마다 약간씩 변이가 이루어진다. 여러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될 때 유형적인 틀을 근거로 해서 전승되기 때문에 공동작의 성격이 강하지만 소리꾼이 사설을 창작하기도 하기 때문에 창작적인 요소도 함께 공존한다. 그런 까닭에 전승과정의 역사성은 물론 구연되는 사회적 상황과 구비전승에 따른 가변성을 더불어 지니게 된다. 이때 실제적인 전승과 연행의 주체가 되는 소리꾼은 동시에 전승자

27) 1991.8.1~4. 제주대학교 국문과 학술조사.

로, 공시적으로는 사회적 생산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sup>28)</sup> 때로는 상황과 청중을 고려하여 재창조하기도 하고 청중에 따라 다르게 수용되는 사회적 생산물이다. 또한 전승의 과정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구연자의 창작적 요소가 덧붙이기도 한다.

현재 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시집살이노래는 공식적 표현과 전형적인 짜임새를 갖추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조천읍 신촌리의 김경생 할머니의 경우는 서사적 즐거움을 갖추며 꽤 길게 노래했는데 고정적인 유형의 노래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개성이 두드러진 노래를 재창조하고, 다른 노래에서도 탁월한 솜씨를 발휘한 훌륭한 소리꾼이었다. 이같이 소리꾼의 창조적 역량에 의해 불러진 노래가 사실이 더 풍부하고 문학적 가치도 높다. 민요야말로 소리꾼의 생산과 수용이 가변적이고 강한 사회성을 띠는 생산미학, 수용미학의 변증법적 합일을 설명할 수 있는 연행물이다.<sup>29)</sup> 민요는 사회적 생산의 성격과 개인적 창조의 성격이 상호의존적으로 역동성과 긴장을 이루면서 전승 변이된다. 시집살이 노래도 고정적 체계인 전승적 요소와 비고정체계인 창작적 요소가 섞여 전승, 변이되고 있는데 이는 구연자의 사설에 대한 지식과 기억력, 다양한 생활 체험을 반영하는 것이며 노래 불러지고 있는 상황도 사설의 전승과 변이에 관여함을 말한다. 민요는 원초적으로 삶의 노래이므로 삶의 현장의 문제, 가창과정, 기능 등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민요의 전승과 변이는 이러한 복합적인 제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때만이 온전한 연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3. 전개유형과 구조

서정 혹은 서사라는 장르가 엄격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집살이노래에

28) 임재해는 위의 책에서 민요의 전승 변이는 시간, 공간, 기능을 바탕으로 변이되는 양상과 내부구조의 변이결과를 살피고 있다. 좌혜경은 “민요의 전승 변이” (《돌꽃 김상선교수 화갑기념논총》별책, 1990)에서 민요의 전승 변이 현상을 통시적 측면, 공시적 측면, 기능적 측면, 내부구조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29) 임재해; 위의 책, p.273.

는 서정적으로 전개되는 노래와 서사적으로 전개되는 노래가 함께 존재한다. 서정적인 노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거나 등장한다 해도 일정한 성격을 지니지 않으며 사건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는 반면, 서사적인 노래인 경우에는 시집식구, 남편, 첩 등과 같은 일정한 성격을 지닌 인물과의 갈등이 나타나며 이야기로서의 전체적 의미와 일정한 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시집살이노래가 둘 중의 어느 하나로 귀속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서정, 서사양식이 함께 드러나는 노래도 있는가 하면 서사적으로 노래되다가 서정적으로 심상화하거나 개인적 서정에서 서사로 옮겨가기도 한다. 이는 시집살이노래의 혼합 장르적 성격을 설정할 필요를 말한다.

이 장에서는 서정과 서사를 구분할 수 있는 몇가지의 기준을 세우고 시집살이 노래가 전개되는 양상과 구조적 특징을 살핌으로써 작품세계의 의미망을 살펴보고자 한다.<sup>30)</sup>

서정적인 노래는 1) 일정한 성격의 인물이나 사건이 없다. 그리고 2) 대부

30) 장르론에 대한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에서 비롯하여 삼분, 사분법으로 진행되어왔다.

Bovet은 서정, 서사, 희곡으로 분류하면서 서정장르는 신념과 절망의 양극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서사는 행위와 열정이 아울러 표현될 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Ernst Hirt는 서정을 시인의 자기표현의 독백형식으로, 서사를 등장인물에 관한 해설자의 보고 및 해설자의 자기표현과 허구적 인물의 자기표현 사이를 교체하는 것으로 보고 독백과 대화의 결합을 서사로 보았다. Herbert Seidler는 서정, 서사, 희곡의 기존 장르에다 교술을 첨가하였는데 서정을 노래하기, 서사는 서술하기, 희곡을 재현하기, 교술을 보여주기라고 하였다. Northrop Frye는 서정, 서사, 허구, 희곡으로 사분하고 서정과 서사를 주제적 장르로, 허구와 희곡을 허구적 장르로 보았다. 이 구분은 서정과 서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단서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둘은 주제 위주의 주제적 장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서정은 가창되고 서사는 구술된다는 차이점을 지닌다. Paul Hernadi는 주제적 양식, 극적양식, 서정적 양식, 서사적 양식으로 사분해 놓고, 작가가 독자에게 직접 말하게 하는 방식, 작가가 숨고 등장인물 상호간에 말하게 하는 방식, 독자가 숨고 작가가 비공개적인 사적 시점으로 말하게 하는 방식, 작가가 직접 말하기도 하고 등장인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말하는 이중적인 시점의 방식이 있어서 이들이 수사학적으로 작용하여 문학작품을 16개의 장르가 존재한다고 하여 역동적 실체로 파악하였다.

본의 노래는 시적 자아의 기대와 절망의 극단에서 나타나는 희망적 의지 혹은 좌절에 의한 신세한탄으로 개인적 심상이 표출된다. 3) 시적 자아의 내적 체험을 노래하는 독백형식을 취한다. 4) 어떤 상황을 독자적으로 표현한다. 5) 개인적으로 창작하고 자기 인격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적 시점으로 말해지는 방식을 취한다.

서사적인 노래는 1) 인물의 일정한 성격과 사건을 갖춘다. 2) 화자는 그가 속한 사회의 대변인이 된다. 즉 사회에 잠재하거나 필요한 것을 표현한다. 3) 사건을 관찰하여 서술한다. 4) 어떤 행위와 사건을 보고하는데 행위가 표현될 때 독백과 대화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5) 화자는 청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기도 하고 등장인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말하는 이중적인 시점을 취한다.

### 3-1. 서정적 전개

서정적으로 전개되는 시집살이 노래들은 갈등과 대립이 없이 심경의 상태나 변화를 토로하는 신세타령과도 같은 노래들이다. 시집살이의 고달픈 상황을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표현해낸다. 그래서 개인의 내면적인 슬픔이나 생활감정이 심상화하여 나타난다.

울명실명	춤명살앙
홀로앗앙	실눈물울
발레레	지우명살아도
아는사람	꺾나웃어라 <sup>31)</sup>

참으면서 서러운 눈물을 지우며 살아봐도 어느 누가 그 심정을 알아주는 이 없더라는 내용의 개탄이 솔직한 독백조로 흘러나온다.

낭도지는	지계여마는
돌도지는	지계여마는
우리어멍	날지운지겐

31)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上》, 461번



늪이브린	지계로구나 <sup>32)</sup>
지계지계	무지계
우리아방	날지운지계
늪이브린	무지계지완
지와노난	부리지못한다 <sup>33)</sup>

이 노래들은 시집살이의 고통을 지극히 개인적인 시점으로 노래하면서 서정시로서 틀을 갖추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 노래의 뛰어난 점은 서정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연상과정이 강력하게 작용함으로써 일상적인 산문구와는 다른 신선한 이미지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점이다.

청춘에 할일이 내그리 없더나  
 이야홍 야아홍 다골을 말인가  
 우리가 요렇게 내살다가  
 이야홍 야아홍 다골을 말인가  
 혼번느착 실수가 뉘면은  
 이야홍 야아홍 다골을 말인가  
 만추야 청산에 운무로구낭아  
 이야홍 야아홍 다골을 말인가  
 시집만 가기를 좋아나 말아라  
 이야홍 야아홍 다골을 말인가  
 물도나 산도나 엇어랜 섬이라  
 이야홍 야아홍 다골을 말인가  
 귀양마련은 날보낸 어머니  
 이야홍 야아홍 다골을 말인가  
 낭도나 팔자를 굶어랜 나무  
 이야홍 야아홍 다골을 말인가  
 길궤나 집이랑 뵙조낭 놓안에  
 이야홍 야아홍 다골을 말인가  
 팔도나 처녀랑 드디고 가노라  
 이야홍 야아홍 다골을 말인가

32) 김영돈:위의책, 405번

33) 김영돈:위의책, 499번

나무도 팔자랜 좋아랜 나무  
 이야홍 아아홍 다골을 말인가  
 관덕청이랑 대들보 놓고서  
 이야홍 아아홍 다골을 말인가  
 일만선비랑 절말아 가노라  
 이야홍 아아홍 다골을 말인가<sup>34)</sup>

이 노래는 리듬까지도 매우 연상적이다. 대체로 성격이 뚜렷하지 않은 말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은 시각적인 이미지로 집중되고 있다. 서정시가 때론 음악에 지배를 받아서 사설까지도 한정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시집살이는 물도 산도 없는 귀양섬이고 자신은 팔자 사나운 나무라는 시적 비유를 통해 자신의 서러움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표출된다.

씨아방아      거꾸러지라  
 진진담뱃대    내츄지여  
 씨어멍아      거꾸러지라  
 궤팡구석도    내츄지여  
 씨누이년아    거꾸러지라  
 살래구석도    내츄지여  
 서방님아      거꾸러지라  
 동네부랑제    내츄지여<sup>35)</sup>

자신의 삶에 고통을 주고 구속하는 상대역들에 대한 강한 반발을 노래하고 있다. 안타고니스트인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이 없어지면 자신이 평소에 원했던 담뱃대, 곶팡, 부엌살림, 동네남자들까지도 모두 소유하겠다는 대답하면서도 웃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몰고간다. 이는 자신의 내부에 있던 잠재의식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며 상대역들을 꿈쩍 못하게 하는 문학적 呪文이다. 격대감의 가장 직접적 표현은 욕설이지만, 욕설이 시집 식구들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욕설 그 자체로 소박한 여성들의 심리표현인 것

34) 1989.11 민요학회 조사.  
 제보자 : 조천읍 조천리, 이이환(여.77)  
 35) 김영돈:앞의책, 455번

이다.

### 3-2. 서사적 전개

제주도에는 서사적 시집살이 노래는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시집살이노래의 原形은 서사적이었을 것이다. 고달프고 힘든 생활이 긴 서사체로 구현되었을 것인데, 전승단계에서 취향에 맞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사설만이 전승되고 나머지는 소멸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머리가 없거나 꼬리가 없는 구연물일지라도 시집살이노래는 서사적 양식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가) 우리어머님	날날적애
무신날애	날날던고
눔난날애	날건나꼭
눔난날애	날건마는
전생곳맨	구월에나난
구엿곳도	내벗이더라
(나) 성님성님	수춘성님
시집살이	어명헛대가
아이고야야	말도나말라
생강고추가	매울맹흔들
시집살이보다	에~더매울소나
사살남피담은	씨어명에
코생이담은	씨누이더라
장돛담은	씨아방에
물꾸럭담은	서방이더라
이에저에	살단보난
검은머리가	흰머리로구나
(다) 친정아버지	시집갈때
무신말을	골아신고허난
큰년아	시집가민
말물랑	삼년이여
귀막앙	삼년이여
눈떨영	삼년이여

살암시민	살아나진다
살당살당	못사난
남편애	보곡
친정더레	드리다드랜허엇져
(라) 친정더레	돌아가당보난
시월에	앉은평이
파드득	놀아간다
아용다용	가심쟁이랑 시어머님주구
조진조진	주둥이란 시누이주구
더퍼더퍼	놀개라근 시아버님 주어나져라
종긱종긱	똥다리랑 이내낭군 주어나져라 <sup>36)</sup>

이 노래는 비교적 서사구조가 잘 짜여진 작품으로 시집간 여자의 욕구와 갈등이 시간적 흐름을 좇아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가)에서는 시집살이를 한탄하면서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고 있는데 독백조의 개인감정을 하소연한다. 그것이 (나)에 오면서 서사화 되어간다. 사촌형님에게 시집살이가 어떤가를 물음으로써 작품 속으로 또 다른 간접적 화자를 끌어들인다. 그러면 새로이 등장한 사촌형님은 자신의 시집살이를 많은 청중들에게 보고한다. 여기서 나의 직접적인 말건넬과 간접적인 화자의 말건넬이 만남으로써 이중적인 시점을 취하게 된다. (다)에서는 사촌형님의 한탄을 듣고나서도 시집갈 때 친정에서 부탁한 말을 생각하고는 참고 살아보려는 노력을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역시 힘들게 되자 친정으로 돌아간다. (라)에서는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평이 등장하여 이제까지의 이야기 전개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보여주며 반전된다. 화자인 “나”는 그 평을 빌미로 다시 시집으로 돌아가 화목한 생활을 엮어나간다.<sup>37)</sup>

이러한 노래가 주는 또다른 의미는 이 노래의 화자가 그가 속한 사회의 대변인이라는 점이다. 즉, 이 노래 속의 고추당초보다 더 매운 시집살이는 개인

36) 1988. 3. 필자조사,

제보자 : 조천음 신촌리, 김경생 (여.70)

37) 일단 이 부분에서 노래가 끝나고 말았으나 청중이 중간에서 중단시키지 않았더라면 좀더 많은 즐거리가 이어져서 장형화했을 것이다.

적인 것만은 아니었으며 시집식구들의 횡포 또한 사회제도와 가족제도가 빚어 낸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 사회의 잠재적 성격이 구연자의 표현을 통하여 고 발되고, 부정되고 있다. 반복적 리듬을 통한 화자의 직접적 말건넬이 대사회적 성격을 띠면서 리얼리즘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사화되는 노래인 경우 노래의 결말이 희망 또는 좌절로 기울어짐에 따라 청자의 심리적 태도에도 변화를 가져와 청자가 공감을 하거나 반발을 보이기도 한다. 서사적인 노래의 특징은 자신의 독백과 대화가 종종 결합되고 있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 |          |                      |
|----------|----------------------|
| (가) 저가마귀 | 시실피울멍                |
| 어느누계     | 드라나갈티                |
| 아들가명     | 똥가명 허라               |
| 메놀아기     | 드라나가라                |
| (나) 옛메누리 | 츄레로가민                |
| 넌덜아니     | 가리야마는 <sup>38)</sup> |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노래이다. 마당에서 곡식을 말리던 시어머니는 불길한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미운 며느리를 데려가 라고 말한다. 이때 어디선가 이 얘기를 들은 며느리는 순리대로 차례를 지켜 옛며느리부터 가야 자신이 가겠노라고 항변한다. (가) (나)는 둘의 노골적인 대화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느 하나의 독백이 될 수도 있는데 서정적인 노래와는 달리 사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시집살이 노래를 서정과 서사 두 양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고찰하였으나 시집살이 노래를 서정 혹은 서사의 어느 한 장르로만 귀속시켜서는 곤란하다.

- |          |       |
|----------|-------|
| (가) 이여이여 | 이여도허라 |
| 날랑죽건     | 닥밭되문영 |
| 일천선비     | 글밭애놀라 |
| 이여동허라    | 이여동허라 |
| (나) 성님성님 | 사촌성님  |

38) 김영돈: 앞의 책, 483번

시냇살이가	어평삽데가
아이고애야	말도말라
장뽕닭은	시아방에
암똥닭은	시어명에
물꾸럭닭은	서방님에
구제기닭은	시누이에
살찐허난	고생이되연
간장간장	일천간장
다대기명	살암져훈다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이엿말랑	말아근가라
무정세월	여루허연
눈물제완	살단애보난 두어~
다늬어간다	
(다) 맹사십리	해당화는
맹년삼월봄이오면	오건마는
우리인생은	한번가민
다시오지	못하는구나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sup>39)</sup>

(가)에서 서정적인 신세한탄으로 가다가 (나)에서는 서사적으로 이어지고 (다)에 오면 다시 서정적인 노래로 마무리된다.

글을 배우지 못했으므로 한평생 노동으로 보내야 하는 서러운 마음은 닥발의 종이라도 되어 선비들의 글밭에라도 늘고 싶다는 강한 신세한탄과 소망으로 표출된다.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서러운 시집살이는 좀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고되는데 이때는 사촌형님의 입을 빌어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는 삶의 무상함이 해당화꽃에 비유되면서 심상화되고 있다. 많은 노래에 아리랑 같은 서정적 사설이 끼어들거나 후렴구의 반복이 있는 것은 민요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사실은 시집살이노래와 같은 민요의 장르가 서정이나, 서사 어느 하나의 장르로 귀속시키기 곤란한 혼합장르적 성격

39) 1988. 3. 필자조사.

재보자 : 안덕면 덕수리, 윤추월(여.73)

을 갖는 것임을 말한다. 그리고 장르간에도 서로 유동적인 넘나들고 이동이 있다는 것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sup>40)</sup>

서정적 노래, 서사적 노래, 서정적 노래와 서사적 노래가 함께 섞여있는 경우는 구연상황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다. 혼자 일을 하면서 부를 때나 여럿이 부르더라도 사실이 가락에 지배를 받는 경우는 서정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많고, 작업이 비교적 장시간 이어질 때는 노래도 서사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시집살이노래는 시집식구와의 실제 갈등양상에서 내용을 얻고, 노래가 이뤄지는 구연상황에서 형식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주민요는 서정민요가 대부분이고 시집살이노래 역시 서정민요로 많이 불려지고 있다는 것이 육지의 시집살이노래와 다른 특징이다. 이는 제주도 시집살이노래의 기능상 성격이 노동요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 3-3. 구조적 특징

시집살이노래가 어떠한 유형구조로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사회적, 미학적 의의를 밝히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조동일은 "여러 구체적 단락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의미"를 단락소로 정의하고 서사민요가 "고난-해결의 시도-좌절-(해결)"의 구조를 지닌다고 하

40) 우리나라에서 장르론의 체계를 세운 조동일은 서정을 세계의 자아화, 서사를 작품외적 자아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 희곡은 자아와 세계의 대결, 교술은 작품외적 세계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자아의 세계화라고 하면서, 서정민요를 서정장르에 서사민요를 서사장르에 놓았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장르 구분의 명백한 틀을 만들어 놓긴 했으나 이를테면 하위 구분에 들어가서 서사민요와 소설이 같은 장르류에 속하게 되어 동일 장르 성격으로 범주화하다 보니 각 장르종의 특성이 희석되는 한계를 드러낸다. 즉, 서사민요는 노래하기, 소설은 서술하기의 차이점과, 서사민요는 주제적 양식에, 소설은 허구적 양식에 가깝다는 구별이 불명확해진다고 하겠다. 그리고 서사민요는 태마 위주의 진술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소설은 풀뚝 위주의 진술이 이루어진다는 미묘한 차이점이 무시되고 있는 듯하다. 또한 김홍규 교수의 비판대로 혼합적 성격을 지니거나 이동, 변화중인 중간장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였다.<sup>41)</sup> 이러한 구조는 고전소설을 비롯하여 이야기 줄거리를 갖추고 있으면 거의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제주도의 시집살이노래의 전개유형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시집가고	이삼일만에
양동이틀	깨어노와난
씩아버지	씩어머니
나서고	이르는말이
너의집의	
가사전택	다 돌려도
양동이만	물어도라
(나) 며느리나사	이르는말이
나의집에	
가사전택	팔던안팔던
천냥이나센	만냥이나센
이내몸은	태도련님의
흔스푼에	내래왔이니
가사전택을	아니팔아도
물어올지	아니올지
(다) 전어찌아리아	어찌올라
진주남강	너르다해도
시어명이	시아방이
코이크오. <sup>42)</sup>	

며느리가 과감히 항의하고 있는 이 노래는 시부모와의 대립과 갈등 사이에서 며느리의 우위가 확보되고 있는 노래다.

(가) 단락에서 시부모는 양동이를 깬 것에 대해 친정집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물어오라고 함으로써 고난이 부과되고 갈등이 발생한다. 곧 고난의 부과로부터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며느리의 현실인식의 출발이다. 그런데 (나) 단락에 오면 입심좋은 며느리는 자신은 시집와서 재물 가지고도 물어낼 수 없게 몸을 헐리웠으니 몸값을 물어내라고 항의함으로써 정면 대결한다. 이 대결은

41)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출판부, 1970.

42) 김사엽 외, 《조선민요집성》, p.320.



현명한 여자가 시도하는 해결방법의 하나이다. 현명하면서도 당찬 평민여성의 반항이 노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의 시도는 일단 성공한다. 양동이 깨진 것을 물어달라고 하는 시부모의 거드름은 노동력의 제공이라는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인정을 얻어낸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콧대가 너무 큼을 나무라는 것으로 노래의 갈등은 완전 해결된다. 즉 이 노래는 "(가) 고난-(나) 해결의 시도-(다) 해결"의 구조로 되어 있다.

(가) 씨앗이엔	뜯으레가난
같은맛되	메마꿨?찌
회번듯이	나앗아서라
(나) 나여히에	요만이고난
입여히엔	언매나종으카
이여이여	이여도ㅎ라
(다) 앞문으로	받은펜지를
뒷문으로	열려보난
씨앗의잡년이	죽엇젠
펜지받으난	쉐케기반찬에도
(라) 맛웃던밤이	소곰반찬에도
문썰문썰	잘넘어간다
무신병에나	죽엇더냐
나력병에도	죽엇더라
이여도ㅎ라	그년저년
잘죽엇더라 <sup>43)</sup>	

시집살이 노래에 너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는 애정의 대상을 중심으로 빚어지는 처첩간의 갈등이다. 자기의 사랑을 앗아간 원수같은 시앗이기에 공격의 대상은 남편보다도 첩에게로 향한다. 그래서 분풀이를 하기 위하여 첩의 머리채라도 잡고 뜯어야 직성이 풀릴판이다. 이것은 달리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풀어보려는 해결의 시도인 것이다. 본처의 좌절이야말로 현실의 객관적인 모습이며 좌절하더라도 고난과 싸우고자 하는 것은 더욱 의의가 있다. 해결의

43) 김영돈, 《제주도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주도, 1986.

시도 자체가 가치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싸움”으로써 해결해 보려던 대결의식은 첩의, 너무 곱게 단장한 모습 때문에 싸움을 그만두고 돌아서게 한다. 자신의 눈에 비친 첩의 모습이 이렇게 고운데 남편의 눈에야 오죽하라는 체념이 (나) 단락의 좌절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은 (다) 단락에서 완전 해소된다. 눈에 티갈던 첩이 죽었다는 소식은 맛없던 밥이, 승리의 쾌감에 아주 잘 넘어가게 된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라) 단락의 “그년저년 잘 죽었다”는 안심과 기쁨에 젖게 한다. 갈등의 완전한 해소가 이루어진 셈이다. 곧 이 노래는 “(가) 고난해결의 시도-(나) 좌절-(다) 고난의 해결-(라) 완전한 해결”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시집간 여자가 승리하는 이 유형구조는 여성의 현실인식이 체념으로 끝나지 않고 축첩에 대한 반발이 좀더 적극성을 띠도록 하고 있다.

- (가) 시집살이의 괴로움에 신세한탄한다.
- (나) 사촌형님에 대해 시집살이가 어떠냐고 물어본다.
- (다) 시집살이는 고추보다도 더 매운 것이라고 비판한다.
- (라) 친정부모의 말을 생각하고 참고 살려고 맘먹는다.
- (마) 노력해도 안되니 남편에게 친절으로 데려다 달라고 한다.
- (바) 친정가는 길에 평을 잡고 다시 시집으로 돌아와서 나눠준다.<sup>44)</sup>

김경생 할머니의 노래를 단락만을 나열해 본 것이다.

(가) 단락은 시집살이의 갈등 곧 고난이다. 고난의 문학적 반영이 갈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생활적이고 필연적인 갈등이 작품의 서두에서 나타나는 것은 평민문학의 한 특징이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시집살이를 하고 있나 알아보고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해결에의 시도가 (나) 단락이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사촌형님도 시집살이가 고되기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사촌성님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듣고 더욱 심한 좌절을 맛본다. 그러나 여기서 말 수는 없는 일이므로 (다) 단락에서는 보고도 못본척 3년, 듣고도 못들은척 3년, 말하고 싶어도 참으면서 3년 근

44) 1988. 3. 필자조사.

제보자 : 조천읍 신촌리, 김경생(여.70)

십년을 참고 살다보면 살아질 것이라는 친정부모의 말을 떠올리고는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이것은 사회통념이나 규범에 순종할 수 밖에 없는 수많은 나약한 여인상의 모습들이다. (라) 단락에서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 단락에 오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시집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는 좌절 상황에 이른다. 이 부분에 오면 대부분의 청중들은 구연자에게 공감하면서 나지막히 한숨을 쉬기도 하고 서러운 표정을 짓는다. 더욱이 노래하고 있던 구연자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게 되는 것도 이 부분에서이다. 애써 가꿔온 시집살이 전체가 일순간 無化되어버리는, 극적 긴장감이 감도는 절정의 순간이다. 이러한 극한 좌절상황이 (바) 단락에 오면 해소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시집식구와의 갈등도 해결되면서 강한 풍자의 구실도 담당한다. 평의 신체 부위에다가 자신에 대한 안타고니스트로서의 시집식구를 비유한 것은 가히 뛰어난 문학성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 노래는 “(가) 고난-(나) 해결의 시도-(다) 좌절-(라) 해결의 시도-(마) 좌절-(바) 해결”의 구조로 전개되고 있는데, 앞의 두 노래에 비해서 사건이 복합적이고 다채로워진 경우이다.

이들 노래들을 통해서 사실이 장형화되고 이런 구조의 반복이 거듭되면 될수록 내용이 다채로워지고 작품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작품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개인적인 신세한탄에서 대사회적인 문제의 고발로 나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시집살이 노래들은 모두 시집간 여자의 갈등으로 인한 사건의 발단과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의 반복 구조로 짜여진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45)</sup> 즉, 작중화자의 기대상황과 좌절상황으로 인한 반복구조가 시집살이노래의 유형구조의 틀을 형성하고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반복구조는 서사적인 노래에만 나타나지 않고 서정적인 노래 혹은 아주 길이가 짧은 신세한탄에도 나타난다. 다만 서사적인 노래가 역동적이며 사회규범에 대한 강한 반발을 보이거나 저항하는 여성들의 강한 현실인식을 담고 있는 반면 서정적인 노래는 화자의 목소리가 신세한탄이나 그리움, 슬픔의 정서를

45) 이점에 대해서는 이승만의 “음영민요연구”, 서영숙의 “시집살이 노래의 존재양상과 작품세계”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많이 담고 있어서 대부분 좌절상황의 연속으로 나타난다.

서사적으로 전개되는 노래의 유형구조는 반복 구조이면서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위의 두 例謠가 보여주듯이 사건의 발단이 있으면, 그 이야기의 진행이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결말에서 갈등이 해소되는 방식을 취한다.

하늘옥황	상제님똥이
금시상울	내려산
훔일이	엇어전
부름잡앙	잉에걸고
구름잡앙	잉에걸언
왈각잘각	차암더니
서울서도	펜지가온다
앞문전의	받아오민
뒷문전의	폐완보니
시앗죽은	펜지러라
반찬에도	씨단밥이
소금에도	돌아서라 <sup>46)</sup>

사건은 옥황상제의 딸이 지상에 내려온 데서 출발한다. 지상에 내려온 여자는 평민가에 시집을 갔을테고 베틀을 짜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학문하러 서울간 남편은 첩과 살림을 차린다. 세월이 흘러 시앗이 죽었다는 전갈을 받으니 기쁠 따름이다. 이처럼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때 옥황상제의 딸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과 같은 고난의 부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시집살이 노래의 구조적인 특징은 사건이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과 그 전개과정에서 고난의 부여, 그것을 해결하려는 화자의 해결 시도라는 반복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제주도 시집살이노래에 역사와 삶의 체험을 공유하는 서사성이 강조되는 노래와, 평민여성의 구체적 정서, 생활감정에 토대한 서정성이 강조되는 노래가 공존하고 있음은 앞에서 살핀 바

46) 《제주도부락지》Ⅱ,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1.

있다. 이러한 노래의 유형구조가 보여주는 순차적, 반복적 전개방식은 시집살이노래가 문학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하겠다.

## 4. 표현상의 특징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의 사실들은 평민여성들의 일상적인 情愫를 노래하며 또한 생활전반에 걸쳐 있어서 여성들의 구체적 정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고난을 이겨내는 生活哲理과 시적 비유를 통한 뛰어난 표현은 시집살이노래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 장에서는 제주도 시집살이노래의 문학성을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 비유하는 소재의 특질과 평민 여성들의 미적 체험을 살피고자 한다.

### 4-1. 소재의 비유

민요의 수사적 표현은 현실을 전형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구실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작품의 형식적 통일성을 용이하게 보장할 수 있게 한다. 곧, 민요를 일상언어와 구별되는 문학작품일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표현상의 특징에 있다 하겠다.

시집살이 노래의 전승에서 두드러진 것은 관용적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점이다. 고정적인 유형의 표현은 시집간 여자의 안타고니스트로서의 시집식구들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면서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있는데 시집식구들의 특징을 잘 묘사해내고 있다.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선 우선 소재의 일상성과 구체성을 들 수 있다.

성님성님	사촌성님
시집살이가	어떻헛데가
아이교야야	말도나말라
생강고추가	매웁덴흔들

시집살이보다   에~더매울소나  
 사살남피닭은   씨어멍에  
 코생이닭은    씨누이더라  
 장돛닭은       씨아방에  
 물꾸럭닭은    서방이더라

시어머니는 사살남피에, 작고 악삭빠른 시누이는 용치놀래기인 코생이에, 거친 시아버지는 장돛(수탉), 팔을 벌리며 달려드는 남편은 물꾸럭(문어)에 비유하고 있다. 제주도의 거의 모든 시집살이노래에는 이와같은 비유에 의한 관용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것들에서 소재를 택하여 시집식구들의 성격을 묘사해내고 있다.

필자가 대상으로 한 자료를 중심으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소재를 분류해보니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시아버지 : 장돛, 솫, (가금류)  
           구쟁기 (어패류)  
 시어머니 : 암돛, 씨암탉, 암퇘지 (가금류)  
           암뿔, 암참복, 점복, 구쟁기, 자리 (어패류)  
           호박 (채소류)  
           겉송새 (조류)  
           눈물, 사살남피 (기타)  
 시누이 : 코생이, 구쟁기, 졸락, 술퀴, 불락, 초랭이, 술락, 구살 (어패류)  
           종조리 (조류)  
           족제비, 증이 (동물)  
           베룩 (곤충)  
           모질이, 노일저대 (인물의 성격)  
 남편 : 장돛, 강생이 (가금류)  
           물꾸럭, 몽개, 문개, 술치, 물꾸러미, 미꾸럭 (어패류)  
           무득새 (조류)  
           뱅신, 물주시, 문둥이 (인물의 성격)  
           등잔 (기타)  
 그외 :  
 시아지방 : 코생이 (어류)

불등판 (인물의 성격)

시애기 : 빙애기 (가금류)

시할망 : 순착

성미가 급한 시아버지는 수탉이나 수탉지에 비유되거나 해산물 중에는 소라에 곧잘 비유된다.

시어머니는 병아리를 단 씨암탉이나 암괘지, 암전복에 비유된다. 그런가 하면 투박하고 못생긴 호박이나, 눈물, 사살납피같은 것도 시어머니를 비유하기에 알맞다.

시누이는 자신의 모든 일을 방해하고 고자질하기 일쑤이고 약삭빠르므로 코생이(용치늘래기), 초랭이, 술락에 비유된다. 그런가 하면 툭툭 쏘아붙이는 사나운 성질은 구살(성계), 불락에 비유되고,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습은 중이(취), 족제비에 비유된다. 특히 성질이 사나운 모질이(모진 성격을 가진 사람)나, 자신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데 빈둥거리기만 하므로 노일저대<sup>47)</sup>에 비유된다.

남편은 여자가 힘든 노동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팔을 벌리며 달려들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채우려고 하므로 물꾸럭, 뭉개, 문개, 물꾸러미(문어)에 비유되는가 하면, 시집식구들 사이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보호해주어야 하는데도 중립을 지키거나 그 구실을 제대로 못해내는 무능력한 존재이므로 뺨신(뺨신), 물주시, 문둥이에 비유하는가 하면 그저 소리없이 묵묵하다 해서 무득새에 비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고 필요한 존재이므로 등잔에 비유되기도 한다.

이러한 소재들이 갖는 특징은 모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로 매우 구체적이며 일상적이라는 점이다. 비유적 소재들은 단순화시켜 놓았으며 특히 대등한 요소들을 병렬적으로 배치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표현상의 특징은 장황한 어떤 설명보다도 대상을 효과적으로 묘사해내는데 성공적이다. 시집식구들을 비유하는 소재들을 구상적, 일상적, 가시적인

47) 제주 무가 <문전본풀이>에 나오는 여신.

현용준, 《제주무속자료사건》, 신구문화사, 1980.

것들을 끌어다가 즐겨 비유함으로써 그 등식의 긴장체계를 고조시키고<sup>48)</sup> 있어 시집살이 노래의 의미가 더욱 실감나게 불러지며 전승된다. 이는 민요가 卽生活的 문학이고, 평민들의 현실적인 생활관을 반영한 것임을 말한다.

아용다용 가심팽이랑 시어머님주구  
 조진조진 주둥이랑 시누이를 주구  
 더퍼더퍼 놀개라근 시아버님 주어나져라  
 종긋종긋 뒷다리랑 이내낭군 주어나져라

팽을 구어서 시집식구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 간접적인 비유가 일품이다. 팽의 날개는 허물을 덮어주는 시아버지에게, 가슴은 속마음을 아프게 한 시어머니에게, 주둥이는 온갖 고자질을 하여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 시누이에게, 험센 뒷다리는 언제나 약하기만 한 신랑에게 주겠다고 표현한다. 가족과 그들이 먹을 부위가 합해져 형성된 반복구조의 틀이 강한 현실풍자의 틀까지 형성하고 있다.

시아방은 구쟁기척시 나물보민 세들각훈다  
 시어멍은 암핏의척시 나물보민 오지직훈다  
 시누이는 코쟁이척시 나물보민 호로록훈다  
 서방님은 똥계의척시 나물보민 영쿠정훈다

시아버지는 자신만 보면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는가 혀를 다시므로 소라에 비유하고, 시어머니는 앙심만 품는다고 암소라의 오지직하는 모습에 비유된다. 용치놀래기인 코쟁이는 재빠르게 달아나는 고기로 시누이가 고자질하러 달려가는 모습을 비유하기 알맞고, 문어의 달라붙는 모습은 남편에 비유되기 알맞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의 지역적 특성이 잘 드러난다.

다음으론 공식적 사설을 형성하는 반복 구조의 틀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더퍼더퍼      놀개  
 아양아양      가심  
 울랏울랏      주둥이

48) 김영돈 : "제주도민요에 있어서 비유법수사", 《국어국문학》 22, 1960, p.19.



중글중글      뒹다리

장담같은 시아방은 극극극극 극극극극  
암탉같은 시어멍은 객객객객 객객객객  
물꾸럭같은 서방놈은 뽀작뽀작 뽀작뽀작  
줄락같은 시누이년은 줄락줄락 줄락줄락

씨집에가서      상방문을 열고보니  
씨아방았아      호령소리  
아자자          아자자  
정진문을      열고보니  
씨어멍았아      묵살소리  
이여자          이여자

반복어와 음성연상에 의한 관용적, 반복적 표현이 공식적 사설의 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골계적 효과를 거두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구연자로 하여금 전승 단계에서 쉽게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하고 듣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제주도 시집살이노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인물묘사 뿐만 아니라 지역성을 나타내는 관용구들이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제주도 여성들은 시집을 '물도 없는 귀양섬'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주는 유배의 땅이었다. 그래서 많은 정객들이 정치권에서 밀려나 위리안치되어 모든 소식으로부터 차단된 불모의 땅에서 한울 삼키며 적거해야 했다. 변방으로서의 제주라는 역사와 이들 적객들과의 삶이 늘 함께 해왔기 때문에 제주여성들은 자신들의 소외되고 고단한 시집살이를 귀양섬, 귀양정배, 가다귀섬으로 표현하고 있다. 더욱이 시집살이는 '물도 없는 귀양섬'으로 노래된다. 제주여성들의 어려운 생활은 유배인들의 유배적 사실과 분위기, 유배상황에 직면한 심적 상황을 표현하는 창작 동인이 되기도 해서, 많은 조선조 사대부들의 한시 작품에서 다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村女杵歌

土俗無春聲	이 지방에 쌀짓는 방아가 없어서
村娥抱杵歌	마을 아낙네 절구노래 부르네
高低如有調	높고 낮음이 가락이 있고
斷續似相和	끊일락 이울락 서로 이울듯
欲解須憑譯	알수 없어 통변에게 물었더니만
頻聞漸不呵	자주 들음에 차츰 웃질 않아
凄涼曉月下	치량하다 새벽달에 잠못 이루니
遠客髮先皤	귀양은 나그네 머리만 세누나 <sup>49)</sup>

이 한시는 절구 쟁는 소리를 듣고 그 정감을 표현한 것이다. 새벽까지 곡식을 쟁으며 노래하는 아낙네의 구슬픈 소리를 들으며 적객인 桐溪 정은은 잠을 못 이루게 되고 그러한 연민의 정을 시로 표현했다. 가난 속에 허덕이는 한 여인의 아픈 가슴과 유배된 동계의 외로운 가슴은 서로 같은 입장이다. 그리고 가난한 생활 속에서의 시집살이는 곧, 귀양정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문학이 결국 인간의 현실을 그리는 것이라면 인간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체험하는 분노, 원망, 슬픔, 고뇌 같은 것들이 서로 승화되어 나타날 때 그것은 곧 당시의 사회를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나 유배인이 읊은 한시는 강한 현실인식의 표백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시집살이노래에는 시집살이하는 자신이 태어난 달은 항상 “전생곳은 구월”로 표현되고, 자신의 신세는 늘 “구엿꽃”에 비유된다. 제주도에는 음력 9월9일을 巫祖가 태어난 날이라고 해서 심방들의 집에서 심방굿을 한다.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들의 한풀이를 해주는 사제였던 심방도 이날 만큼은 큰 심방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고된날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무조가 태어난 구월달에 태어난 여자는 박복하다는 속신이 아직도 남아있다. 시집살이하는 여자의 신세는 곧잘 구월꽃인 구엿꽃(국화꽃)에 비유된다. 지금도 항간에는 9자 든 나이는 액운이 끼기 때문에 결혼도 안한다는 속신이 있는가 하면, 여자가 시집살이를 견뎌내야 하는 기간도 눈멀엉 삼년 귀막앙 삼년, 말물랑

49) 《桐溪集》卷1

양순필, “유배한시에 나타난 현실인식”, 玄谷 梁重海博士 華甲紀念論叢, 1987.

삼년 구년을 견뎌내야 했으니,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나는 이러한 표현은 제주도 사람들의 속신에 대한 관념의 반영인 듯하다.

그런가하면 제주 사람들의 생활관념이 가난한 살림을 묘사하는 수관념으로도 나타나고 있다.<sup>50)</sup> 가난한 집의 며느리는 하루종일 '밀덧말'을 갈아서 주먹 삼왜 '다섯'을 만든다. 시아버님 들 드리고 시어머님 들 드리고 나머지로 남편과 반씩 나눠먹는다. 자신은 시부모를 공양하느라고 배고픔을 참으면서도 부모에게 많은 음식을 드렸는데, 무정한 남편은 양이 적다고 화풀이를 한다. 가난한 실생활이 노래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평민들의 실리적인 관념이 밀덧말과 떡 다섯개라는 수치로 곧잘 나타난다. 이는 부모를 더욱 공경해야 한다는 평민 여성들의 성실한 자세가 수치의 구체화와 반복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주도 전역에 분포된 첩노래 역시 관용적 표현을 쓰고 있다.

늪의첩광	소낭괴름은
소린나도	살울메우나
지서명광	오름엇들은
동굴당도	살울메난다

제주에는 유난히 바람과 돌이 많은데, 첩은 늘 소나무에 이는 바람에 비유되고 본치는 언제나 나뭇구는 돌에 비유된다. 바람은 기껏 가짜농은 농작물에 피해를 입혀서 한해의 땀흘린 보람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며 소나무에 와서 소곤대지만 스쳐지나가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본치는 늘 팔세받고 합부로 대해지며 슬하계 발로 채이는 돌과 같지만 돌의 생명력은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비할 바가 아니다. 오름에 아무렇게나 나뭇구는 돌을 지서명(지어미)에, 소나무 바람을 첩에 비유한 것은 뛰어난 대비이다. 현명하고 정숙한 처는 봉우리의 돌처럼 외롭게 버려졌다가도 결국 살 길이 생기지만 첩은 소나무에 부딪쳐 요란스럽기만 한 바람처럼 걸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속이 없어 허망하다고 읊고 있다. 이 노래의 소재는 일상적이면서도 제주도의 女多, 風

50) 예요 59번과 74번.

多, 石多라는 三多를 고루 동원하고 있어<sup>51)</sup> 더욱 뛰어난 묘미를 주고 있다.

제주도 시집살이노래의 비유적 특징은 소재의 일상성과 구체성 외에도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비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비유되는 소재는 평민들의 감정에 맞게 단순화되어 있으며, 대등한 요소들을 병렬적으로 배치하는 반복구조의 틀이 형성되어 이들이 강한 현실풍자의 틀까지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2. 미적 범주

민요는 구전되어온 민중의 공동작으로 현실적이며 일상적인 노래이다. 민요의 구연자는 사회적 통념에 구속받지 않고 평민적인 생활감정을 토대로 자기자신을 충실하게 표현해내고 또한 평민적인 생활감정을 긍정한다. 따라서 민요를 통해 민중들의 미적 체험을 살피는 것은 민요의 사회적 의미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미적 체험이란 체험하는 주체자의 심리적 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체험의 주체자가 어떠한 태도로 삶을 수용하는가, 그 체험의 내용을 어떠한 태도로 해석하는가, 체험의 방식이 관조적인가, 미적 직관을 가지고 있는가 등의 요건에 의해 여러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sup>52)</sup> 다른 모든 시가가 그렇듯이 민요는 사물을 미적 대상으로 완상하고 미적 태도로 해석하며 미적 직관으로 받아들인 결과물이다.

미의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적 범주를 규정해야 하는데 미를 몇개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sup>53)</sup> 민요에서의 미적 표현은 흔히 풍

51) 김영돈, "제주도민요개관", 《국어국문학연감》, 이우출판사, 1977.

52) 이현수, "한국부요에 표현된 여성미의식", 조선대 《인문과학연구》, 1990, p.1.

53) 백기수, 《미학》, 서울대출판사, 1978.

미의 범주는 크게는 비극미와 희극미의 양분에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현수는 앞의 논문에서 미의 범주를 Max Dessoir의 구분을 참고로 하여 숭고미, 우아미, 비극미, 골제미의 네 가지 유형으로 자세하게 살피고 있다.

자를 곁들인 골계의 양식을 취하는데 제주도의 여성요, 특히 시집살이노래에서도 골계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골계미는 민요를 미학적으로 분석함에 있어 주목해야 할 미적 범주라고 할 수 있다. 평민문학의 핵심적인 미적범주는 골계이고 또한 조선후기 평민문학이 대두하던 시기부터 적극적인 의의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sup>54)</sup> 골계는 갖가지 양상을 포함하므로 단순하게 규정짓기는 어려우나 인간의 생활이나 의식의 내용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의 관련에 어떤 착오가 생겨서 이것이 자기와의 정신적 거리를 가지고 관조될 때 일종의 특유한 감정적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sup>55)</sup> 골계미는 희극미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골계미를 희극미의 하위 개념에 두어 희극미의 범주에 골계미를 포함시키기도 하나 반어, 풍자, 유우미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는 희극이라는 어휘보다 골계라는 어휘가 보다 적절하다. 골계미는 보통 왜소하고 비천한 것에서 얻어지며 거북하고 숭고한 것을 부정하며 풍자한다.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자각할 때라든지 모순된 상황을 인식할 때 역설적 쾌감이나 불쾌감이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골계미는 부정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현실적인 것이 이상적인 것보다 열등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나타나지만 열등한 상황에서 정면대결하지 않고 우회적 접근으로 이면공격을 취하기 때문에 주체는 상처를 입거나 파괴되지 않게 된다.<sup>56)</sup>

어느켈랑	씨아방죽엉
고치장단지도	내츄지
행장계도	내츄지
상재밋도	내츄지
씨아방죽언	츄추단보난
콩씨뼈여노난	생각이남겨
어느켈랑	씨어명죽건
줄방석도	내츄지

54)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출판부, 1982, p.389.

55) 《세계문예대사전》, 서울출판사, 1983.

56) 김학성, 《한국고전시가의 연구》, 원광대출판부, 1980.

밤우궁도	내촌지
계문을쇄도	내촌지
씨어명죽언	춤단보난
보리방애	물서꺼노난
씨어명생각	뚜시남저 <sup>57)</sup>

시집살이가 고되고 모든 것을 재 마음대로 할 수 없자 며느리는 시부모가 죽어버렸으면 한다. 그런데 주문대로 시부모가 죽게되자 살림살이를 차지할 기쁨에 춤을 춘다. 비정한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도 그리 오래가지 않고 늘 함께 했었던 일터에 가면 그리워진다. 절대로 악해질 수 없는 선량한 평민여성의 소박한 감정을 읽게 된다.

저가마귀	시실피울멍
어느누계	드라나갈티
아들가멍	똥가멍후라
메늘아기	드라나가라
옛메누리	츄레로가민
넌들아니	가리아마는

제주도에서 까마귀는 저승사자라고 하여 까마귀가 지붕 위에서 세번 울고가면 그집에 상을 당한다는 민속적 禁忌가 있다. 까마귀떼가 울면서 집주위를 빙빙 돌자, 시어머니는 아들 딸을 데려가버릴 것은 아닌가 마음줄이다 미운 며느리나 데려갔으면 하고 말한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무심코 내뱉은 말을 듣고 그 부당함에 강한 반발을 보인다. 특히 며느리의 재치있는 발언은 청중에게 웃음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시어머니의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대결의지를 보여준다.

시아방 상통이에 체걸어도	승
시어멍 상통이게 누물 썰어도	승
시아방 콧등에 똥고망 썰어도	승
넌뻥으로 고레츄록박아도	승

57) 김영돈:앞의책, 454번.



시집식구가 모두 등장하면서 생활고로 인한 고난이 언어유희를 통해 해학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음식을 장만했는데 양이 적었다. 자신은 못먹으면서도 시집식구들에게 알뜰히 나눠준다. 그런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 대접을 소홀히 한다고 때리자, 힘없는 아내는 개에게 화풀이를 한다. 까닭없는 봉변을 당한 개는 고양이를 물어 화풀이한다.<sup>60)</sup>

이 노래는 인간심리를 해학적으로 잘 그리고 있다. 약자에게 가해지는 일방적인 횡포가 골계를 통해 거침없이 비판되고 있다. 곧, 피지배계급에 대한 지배계급의 억압을 비판하는 노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노래에는 강한 풍자가 있다. 시집이라는 권력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평민여성 자신에 대한 인식이면서 거대한 사회권력구조의 횡포에 대한 비판이다. 골계는 비평정신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비평정신은 풍자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실에 대한 체념보다는 뛰어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며, 있어야 할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표출하고자 하는 소산인 것이다. 이러한 수법은 작품의적 자아가 작품내적 자아의 고난이나 비탄에 몰아적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겉으로 봐선 슬프지만 해학이 있기 때문에 슬픔에 빠져들지 않도록 차단하는 구실을 한다.<sup>61)</sup> 그래서 약자의 열세가 끝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장 약한 존재인 쥐는 애써 마련한 곡식을 땅에 쏟음으로써 보복을 하게 된다. 여기서 사건은 반전되고 청중은 한꺼번에 웃음을 쏟아놓는다. 이 웃음이 야말로 긴장했던 기대가 돌연히 轉化하는 데서 생기는 정서이다.<sup>62)</sup>

그러나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나는 미의식을 골계미라고만 단정할 것은 못된다. 오히려 골계미는 우아미나 비극미와 통합되어 나타날 때가 더 많다. 민요는 자체가 자족적이며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다. 그래서 출가와 더불어서 부모와 이별하는 슬픔, 고된 시집살이로 인한 고통, 자신의 신세한탄 등이 노래된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집살이지만 당시의 사회적 통념에 반대하지 않고 순응하기도 하고 이상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것이 우세한 상황에서

60) 김영돈: 앞의 책, 459번.

61) 이 노래가 더 길어지면 고양이는 다시 쥐를 물어뜯고 화가난 쥐는 곡식을 담은 소쿠리를 엎어버린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62) 조동일, "민요에 나타난 해학", 《우리문학과학의 만남》, 흥성사, 1978.



현실적인 것을 추구할 때 현실과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모습이 우아미로 나타난다. 제주도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서정민요들에 나타나는 것이 우아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과 딱딱뜨려 대결하거나 갈등을 불러 일으키지 않고 체념, 순용, 좌절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아미의 모습이다.

비장미는 인간의 의지나 행위가 억압과 좌절을 견디지 못하고 절망적 상황으로 이끌릴 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sup>63)</sup>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는 육지와는 달리 비장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간혹 널리 알려진 진주낭군요나 꼬댁각시요같은 대표적인 비장미를 나타내는 노래들이 발견되기도 하나, 이는 육지로부터의 전파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시집간 여자가 시집살이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거나, 중이 되어 산으로 떠나는 것과 같은 서사민요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특이한 점이다. 비장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대신 여성들은 자신의 삶의 고통이나 비애를 극복하고 표백하여서 다른 것으로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히려 골계미가 섞여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에 비장미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단적으로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결혼과 함께 分家해버리는 제주도의 가족제도, 육지에 비해 여성지위의 우위확보, 제주 여성들의 강인함 등 몇 가지로 추론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제주도 여성들의 미의식을 살펴보면 비장미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우아미와 골계미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주도 시집살이노래에는 삶에 대해 비판의식을 가지고 현실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늘 웃음으로 극복해가는 골계미는 제주 여성들의 삶과 존재방식을 결정해준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제주여성요에 드러난 미적 체험은 민요의 특징 뿐만 아니라 시가문학, 문학전반으로 확대시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 미의식의 특질을 구명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 5. 내용상의 특징

63) 백기수, 《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 5-1. 가족의식

일반적으로 “가계를 공동으로 하는 친족집단”<sup>64)</sup>을 가족이라 할 수 있겠는데, 시집살이 노래는 바로 시집간 여자의 입장에서 새로이 형성된 가족관계를 노래한다. 이때 시집간 여자는 직접 관계되는 좁은 범위의 가족, 곧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동서 등과 갈등을 펼치되 국외자로서 소외자로서 열세한 위치에 서있다.<sup>65)</sup> 그러나 시집살이 노래가 근본적으로 시집간 여자와 상대 역할과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는 해도 그 원인은 자체의 결함이라기 보다는 그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에 사회제도나 가족제도가 어떻게 표출되고 있으며 여성들이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살핍으로써 시집살이노래의 사회적 성격을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시집간 여자와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들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를 포함한 시집식구 전반과 사랑의 대상인 남편, 사랑의 경쟁자인 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것이 시어머니와의 갈등인데, 시집간 여자와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원천적 부정관계 혹은 본원적 대립관계에 있다.<sup>66)</sup>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는出嫁한 여자의 시집에의 심리적 적응과정이 어떠하였느냐, 시가에 경제적 공헌을 잘 하였느냐, 가계를 계승할 아들을 출산하였느냐 등의 정도에 따라 성취지위를 주었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성취지위의 입장에서 경쟁자가 되어 서로 적대세력으로 완강한 대립을 보인다. 게다가 아들과 남편이라는 애정의 삼각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이들의 관계는 더욱 심각해지는데 여러모로 시어머니가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다.

찍클지영	물레레들라
새뭇지영	블레레들라
씨어머님	영문일러라

64) 최재석,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1982, p.29.

65) 장성진, “시집살이 노래의 유형과 인물”, 《여성문제연구》, 13집,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84.

66) 이광규,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사, 1980, p.201.

낸들살앙	무엇올하리 <sup>67)</sup>
울멍밥을	손으로먹으멍
씨어멍눈에	덜어나보게
아침조반	먹지도말앙
요방애나	짚어나보게
앞종애도	다벗어지극
두손도	다봉물엇네 <sup>68)</sup>

시어머니는 벼훔이를 저서 물속으로 들라 하고 띠뭍음을 저서 불속으로 들라 하는 등 갖은 고난에 빠뜨리고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는 인간적인 차별을 하는 상대역이다. 그래서 시어머니 눈에 들어보려고 아침밥도 못먹고 일했더니 앞종아리가 벗겨지고 손에 물집까지 생긴다.

여기에 시어머니의 동조자로서 시누이가 끼어들게 됨으로써 시집살이는 더욱 힘들어진다. 시누이는 사소한 감정상의 대립으로 공연한 트집을 일삼기 일쑤이고 고자질하며 매사에 방해한다. “때리는 시에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밍다”는 말은 그래서 생겨난 것이다.

씨집이엔	오라렌 <sup>69)</sup> 난
씨누이야	씨가렷말라
나도가민	어멍이라라
잔에비운	춤지름이라라 <sup>69)</sup>

시누이도 여자이므로 자신도 며느리가 될텐데 매물차고 시거드름이 심한데 대한 항변이다. 이렇게 구박을 당하고 있지만 자신도 친정에 가면 어머니가 있으니 너무들 뽑내지 말라고 한다. 자신은 잔에 비워진 위태로운 참기름처럼 언젠가 시집살이를 매듭짓고 돌아가버릴지 모른다는 내용이다.

시집식구들과의 갈등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존재가 남편이다. 시집살이가 남편을 매개로 이루어지므로 여성에게 있어서 남편의 존재와 구실은 그만큼

67) 진성기, 《남국의 민요》, 18번 자료.

68) 김영돈: 앞의책, 485번.

69) 김영돈: 위의책, 471번.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남편은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능력자일 경우가 많다. 오히려 갈등을 해결해주는 원조자로서보다는 방관자, 적대자로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서방이엔	난믿어서두
신두얼어	신은배었다
지집이엔	난믿어서두
옷도얼어	입은배었다 <sup>70)</sup>

사랑이 없는 차가운 살림살이를 읊고 있는 노래인데, 이는 시집살이가 애정보다는 생활임을 말해주고 있다. 애정의 결핍은 결국 첩의 등장으로 엄청난 풍파를 겪게된다. 축첩이 허용되는 사회제도는 애정마저 남편의 일방적인 선택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고 동등한 사랑의 표현마저 억제되기 마련이었던 것이다.

제주도의 시집살이 노래를 통해 표출되는 가족관계의 인식이 다른 지역과 다른 특징은 시집식구들과의 갈등을 노래하는 것이 적은 반면, 첩과의 갈등을 노래하는 것이 많다는 점이다. 그 원인은 가족제도와 사회적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주도의 가족제도는 가족내의 역할과 분업, 가족원간의 권리 의무면에서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수한 형태를 갖고 있다. 육지에서는 시어머니가 일정한 연령이 되면 며느리에게 주부권을 인계하고 건너방으로 물러남으로써 안방물림을 하여 가계계승이 이루어지는데, 제주도에서는 처음부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별도의 취사단위를 이룬다. 며느리는 한 울타리 내에서 시부모와 동거하되 바깥채를 사용하고 취사도 따로 하며 고팡도 따로 가지고 밭도 따로 가지기 때문에 마치 셋집을 사는 것 같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시아버지의 식사를 며느리가 돌보아 드리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해서 시어머니의 식사를 며느리가 돌보지는 않는다. 즉 제주도의 시집간 여자는 가계계승상 시집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결혼과 함께 分家하는 제주도의 부부

70) 홍정표, 《제주도 민요해설》, 성문사, 1963, p.160.

가족의 형태는 대가족이 함께 모여사는 육지의 시집살이에 비해 시집간 여자나 시부모 모두에게 편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의 시집살이 노래에는 육지의 시집살이 노래에 비해 시집식구들과의 갈등이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시집식구와의 갈등을 노래하는 것이 적은 반면, 첩을 노래한 것은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제주도에 있어서 첩은 첩, 소실, 작은집, 시앗 등으로 불린다. 그리고 본처는 '큰각시'로 호칭되고 첩은 '작은 각시'로 호칭되며, 첩이 본처를 부를 때는 '성님'이라 호칭하고 본처가 첩을 부를 때는 '아시'라고 호칭한다. 이들은 서로 내왕하며 지내는가 하면 본처자식과 첩자식도 형제자매의 호칭을 사용한다. 또한 육지의 전통적 사회에서 첩은 본처의 자식에 대하여 도련님 혹은 서방님의 호칭을 썼는데 제주도에서는 자기 자식을 부르는 호칭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재산상속에 있어서도 본처의 아들과 첩의 아들이 거의 균등상속을 받으며, 엄격하게 신분구별이 되는 장례식에도 거의 같은 자격으로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본처와 첩의 장례식의 규모에 있어서나 묘지의 규모나 시설에 있어서도 별 차이가 없고 집안의 대소사에도 첩은 거의 본처와 같은 자격으로 참여하며 양자제공이나 제사비용 부담과 같은 친족조직내에서 행하는 역할도 본처와 다를 바 없다. 즉 재주의 첩은 본처와 거의 대등한 지위에 있었다. 이러한 첩제도의 성격은 처첩간의 신분적 차이가 심했던 육지의 전통적 첩제도의 성격과는 다르다. 그리고 양반사회와는 달리 상당한 정도의 이혼과 재혼의 자유가 있었으며,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처첩이라는 신분지위의 차이가 거의 없는 일부다처의 가족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의 첩은 육지의 첩과는 달리 남자와 본처에 대하여 예속의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며 옥내 노동에만 종사하는 소비자도 아니고 어느 아낙과 다를 바 없는 지위에서 옥외 노동에 종사하여 자기 스스로 생활을 꾸려간다. 육지의 첩은 여성의 지위의 고저에 관련되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이동이 적은 지역사회에서의 女多男少 현상과 결합되어 여성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첩의 길을 밟게 하였던 것이다. 이혼, 재혼금지의 전통과 처첩간의 심한 신분적 차이가 있는 육지와는 달리 제주도가 그러한 신분차이와 전통이 거의 없고 축첩이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지역사회이고 보면 이혼,

재혼이 자유롭다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제주도의 제도는 사회적 맥락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현재에 와서도 제주도가 통계상 이혼율이 가장 높다는 보고가 나오는 것은 이러한 사회현상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축첩이 보편적이었던 사회였으므로 처첩 관계가 노래로 많이 불리웠던 것이다. 첩은 애정이란 기본 욕구를 사이에 두고 팽팽한 대결을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시집살이를 가장 힘들게 하는 상대역일 수 있다.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는 가족제도와 축첩제도 등의 사회상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어 노래를 통해 당시의 사회상과 평민여성들의 삶의 방식까지도 알게 해준다.

## 5-2. 현실의식

시집살이 노래는 평민 여성의 입장에서 그들의 생활 그대로를 현실감있게 표현한 문학으로 자기욕구 표현에 충실한 문학이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대립과 갈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생활의지와 신념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은 제주 민요의 특성이기도 하며 제주 여성들의 정신구조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지표는 투수성이 강한 현무암으로 이루어졌고, 농토는 대부분 화산회토로 이루어진데다 바람과 돌이 많아서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지리적으로 환해천협이 섬인데다 이러한 환경적 악조건은 사람들의 삶을 여유없게 했다. 특히 바다와 밭일을 모두 해야했던 여성들은 한시도 노동의 고달픔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여성의 노동은 낮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일터에서 돌아와 휴식을 취해야할 시간에도 가내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제주도 민요가 육지에 비하여 노동요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그만큼 생활 자체가 노동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노동을 앓고는 한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힘든 농사와 그 영세성으로 항상 고된 농사에 시달려야 했는데, 지리적 공간적 악조건 때문에 자신들의 생활고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공납과 부역까지 강요당해 온 제주의 역사는 늘 가난의 역

사였다. 그리하여 공납과 부역을 이기지 못하여 한본토 각지로 유랑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출륙금지령을 내린적도 있었다. 제주도 여성들의 노래에 강한 현실인식이 나타나는 것은 지리적 공간적 악조건에다가 시대적 상황까지 반영된 것이다. 역사적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을 속명처럼 지고 가야했던 여성들은 고난의 삶을 이겨내야 한다는 의지와 저항의식을 의식세계 깊숙히 간직하고 있었다. 여성생활의 어려움은 자연히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표출되고 그 노래는 여성삶 전반을 반영하면서 강한 현실인식을 띠게 된 것이다.

이여이여	이여도골앙
이연말라그네	말아근가라
말아근가민	눔의나옴나
대로한질라그네	놀래로가라
같이올이라그네	셈아니세난
나도입에라그네	골울말한다
어멍보민	골울말한다
어멍웃인	름으로가라
어멍웃인	질호로가라
질궂집이라그네	도실낭싱경
같이올이라그네	맛불이하다
나일도웰인	ㅎ나이웃나

(하락)<sup>71)</sup>

맷돌노래로 불린 이 노래에는 시집살이하는 여성 자신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중도에 시집살이를 포기하면 남이 웃을 것이므로 떠난다는 말을 하지말고 떠나라 당부하고 있다. 떠나는 길일지언정 아무 것도 아닌척 노래를 부르며 가야 하는 서러움이 표현된다. 친정어머니를 만나면 시집을 못살고 떠나는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할게 많겠지만 어머니까지 마음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어머니 없는 길을 택해서 가야하는 게 여성이었다. 길가집이어서 복숭아가 익으면 쓴지 단지 맛볼 사람은 많아도 자신의 일을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시집

71) 《제주도부락지》Ⅱ,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2.

살이었으니 여성의 고통은 헤아릴 수도 없다는 강한 현실인식이 담겨져 있다.

우리어명	날날적의
공부도	안시겨주곡
요런검질만	매랜나시나
성님성님	스촌성님
시집살이가	좋안디긋언디
대롱대단	열두쪽치매가
울울이	헛어져나감네다 <sup>72)</sup>

여자들이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여성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발매는 노래에 나타나고 있다.

흐모실에	식첩한눔아
식솟밋의	불숨아보라
내만나명	불아니난다 <sup>73)</sup>

한마을에 첩을 셋씩이나 한 자신의 남편을 나무라는 내용이다. 세아궁이에 한꺼번에 불을 때면 연기만 나며 불이 아니 일어나듯 첩을 셋씩이나 했으니 가정이 화목할 리 없다는 축첩에 대한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의 내용이 강한 반발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것은 원래 민요가 갖는 진솔성과 현실성에서 연유한다. 민요는 원래 자연스럽고 단순하고 객관적이며 실생활과 연결되는 집단구연물이기 때문이다.

옛날 뒷날  
 혼상보리 혼되타단  
 양작 고편에  
 벌작 놀래에  
 돌음돈는 족박에  
 빌보는 집에  
 명벽 굴안

72) 《제주도부락지》I,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73) 김영돈: 앞의 책, 565번.



밥은 ㅎ난  
조그만  
아방 혼적  
어멍 혼적  
아덜 혼적  
메누리 혼적  
아방은 죽으난  
어멍을 ㄸ리난  
어멍은 용심나난  
아덜을 ㄸ리난  
아덜은 용심나난  
지각실 ㄸ리난  
지각신 용심나난  
겉 도리난  
갠 용심나난  
고냥일 무난  
고냥인 용심나난  
중일 무난  
중인 용심나난  
조쿠먹을 쏘아부난  
독배소구배 독배소구배  
경허드라 험니다.”<sup>74)</sup>

하룻밤에 보리를 갈아서 밥을 하여 가족들에게 고루 나누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가난한 살림살이였다. 쌀을 갈 일이 뜸했으므로 맷돌이 돌아가는 소리가 어린아이의 울음 소리에, 자신이 부르는 맷돌노래는 서럽게 대성통곡하는 소리이고, 집은 별이 승승 보일 것처럼 낡았다. 밥을 했는데 밥이 모자라자 화풀이는 아내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억울하게 화를 당한 힘없는 여자는 자기보다 약한 짐승에게 화풀이를 하게 된다. 이 노래는 상당한 웃음을 동반하고 있지만 실로 눈물겨운 현실인식이다. 힘없는 서민에게 가해졌던 강자의 횡포를 비판하는 강한 현실풍자의 성격을 보이며 또한 평민들의 저

74) 1989. 3. MBC한국민요대전조사, 애월읍 장전리 민요.

항의지이며 극복의지라고 하겠다.

제주도 민요에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강한 현실인식과 저항의지가 많이 나타난다. 이는 제주 사람들의 성향이나 의식구조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자연적 악조건과 싸우면서도 가난을 면할 길 없었던 현실과 시대적, 역사적 상황이 빚어낸 악순환은 평민들의 삶을 어렵게 했고 평민들은 고난의 현실을 노래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했다. 노래가 환경적 조건과 역사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이들이 노동과 더불어서 불려졌다는 것은 평민여성들의 삶의 건강성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즉, 제주도민의 미의식은 지리적 악조건에 대한 적응, 생활고로 인한 고통 등의 경험적 인식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민들은 생활과 삶의 체험을 공유하였으므로 사고체계나 의식구조도 동일하였고 이는 제주민요의 정서적 기반을 형성한 것이다. 노동이 있는 생활현장에는 항상 노래가 있어 노동의 지루함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일을 안하고는 살아갈 수 없었던 제주도였으므로 어느 지역보다도 일노래가 많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노동요가 현실을 부정하고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소산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평민여성들의 치열한 생존의식, 삶의 인식, 현실인식인 것이다. 이러한 부정과 대결을 통한 현실인식이야말로 체념의 정서가 아니라 비판적 정서, 변증법적 정서라고 하겠다.<sup>75)</sup>

### 5-3. 신세한탄과 소망

시집살이노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신세타령이다. 시집살이가 고되었으므로 전인생을 시집살이에 바쳐야 하는 설움이 구구절절 표현된다. 여성 삶의 전반이 진술하게 읊어지고 향유층 역시 평민여성으로 한정되고 있는데, 신세한탄을 내용으로 하는 시집살이 노래야말로 여성문학의 범주에서 다루어질 내용들이다.

75) 문무병, "새로운 싸움곳을 위하여", 《민족예술의 이해》, 민족문화사, 1990.

성님성님	사촌성님
시집살이가	어떡대가
아이고애야	말도말라
고추장단지가	매웁덴흔들
요씨넉살이보다	더매우라
취두서	꼬리감음만흔다
시누인	베룩이닷되
시어명은	눈물이없어
시아방은	신싸래없어
가라오라	드리는집의
눈어두윙	연삼년살고
말몰라근	연삼년살고
귀막아근	연삼년살아
아홉삼년사난	가랜말엇어라
이여이여	이여도 ㅎ라 <sup>76)</sup>

새로 형성된 가족의 가풍이나 관습, 예의범절이 달랐으므로 시집살이는 고추보다도 더 맵고 누워서 짚을 꼬는 것 만큼이나 어려웠다. 며느리는 범사에 시집식구들과 호흡을 맞춰야 했으니 조금이라도 시집식구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날이면 소박당하기 일쑤였던 것이다. 여성의 시집살이의 실패는 여성삶 전체가 실패인 것이나 다름없었으므로 사회적 냉대와 차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보고도 못본 척, 들어도 못들은 척, 싶은 말이 있어도 참으며 살아야만 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렇게 온갖 굴욕과 서러움을 참고 견디고 나서야 비로소 시집식구로 편입될 수 있었던 것이다.

얼어먹젠	어린비가난
빌어먹젠	비맹이가난
돌아서난	돈오미더라
이여이여	이여도 ㅎ라
서돈오미	강좌수침의

76) 1988. 3.27. 필자조사,  
 제보자 : 안떡면 덕수리, 양미생(여.82)

우방에귀	아흙일러라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상아뎨에	메누리들언
집밭이사	날아니준뎨
방에비차락사	날아니주라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아침주녁	물방에질영
가메솟되	죽이랑쑤난
접시셋이	모지래더라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어는채랑	강도령오건
설운서담	다하여두영
백탄불에	얼음늑듯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사르특이	죽아나지져
사르특이	못늑거든
나온질로	돌아나가져 <sup>77)</sup>

너무나 가난에 시달린 나머지 가난을 해소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시집을 들었다. 큰아들의 며느리로 시집을 들었는데 남편이 출타를 하게 되면서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시집은 부잣집이어서 좋은 방아가 아홉개씩이나 있었으나 집밭은 커녕 일하는 도구도 내주지 않으면서 노동을 강요한다. 종일 고된 방아를 찧으려면 밥을 먹어도 힘에 부칠터인데 기껏 세 접시도 모자라는 죽을 먹고 일해야 한다. 시집에서도 역시 가난하고 힘겹기는 마찬가지다. 서럽고 외로운 여인은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소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된다. 남편이 돌아오면 자신의 설움을 하소연하고 죽든지, 그 넘마저 심정을 몰라준다면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토로하고 있다. 얻어먹고 빌어먹는 생활의 질곡을 출가를 통해 극복해 보고자 하는 가난한 현실과, 사랑하는 강도령에게 하소연 함으로써 해소하려는 삶의 욕구를 엿볼 수 있다.

77) 1991. 5.12. 민요학회조사, 북제주군 애월읍 애월리민요.

이렇게 어려운 시집살이였지만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회원하는 사상도 나타난다.

이어도 <sup>8)</sup> 라	이어도 <sup>8)</sup> 라
이어이어	이어도 <sup>8)</sup> 라
이어 <sup>8)</sup> 민	나눈물난다
이어말은	말안근가라
강남올가는	해남올보라
이어도가	반이엔해라 <sup>7)</sup>

‘이어도’는 제주도의 서남해에 있다는 전설의 섬이다.

제주에 섬이니 만큼 제주 사람들은 바다를 떠나서는 생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다. 절해고도의 섬에서 파도치는 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늘 바다와 함께 생활하면서 한편으론 물에의 동경도 키우면서 살았다. 차츰 바다를 통해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무역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무역 떠난 남편은 배와 함께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애태우며 기다리다 이런 노래를 부른다. 해남으로 가는 도중에는 이어도라는 섬이 있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편히 쉬고 있으리라는 염원을 품어보는 것이다. 시집살이노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맺들, 방아 노래에는 죽어서 갈 수 있다는 ‘이어도’를 주문처럼 외고 있다. 이는 새로운 삶을 회원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비록 지금의 상황은 어렵고 고될지라도 영원한 낙원인 이어도가 있다고 믿음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하고 마음은 풍요로울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어도는 제주도민의 낙원사상이면서 영원한 꿈인 것이다.

## 6. 결 론

민요는 언어를 통해 삶과 직결되는 인생체험을 반영하는 문학이다. 그리고

78) 홍정표, 《제주도 민요해설》, 중앙문화사, 1963.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과정에서 언어공동체로서의 의식을 함께 하는 민중의 문학이며 민족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민요에는 여성요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 수많은 여성요에서 여성 삶의 전반이 읊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출가에서 비롯되는 제2의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 시집살이 노래는 사실의 양과 질이 풍부하여 여성문학의 범주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논문은 제주도 평민여성들의 삶을 진솔하게 표현한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의 기능과 존재양상을 통해서 문학과 그 사회적 의미를 살피고자 하였다. 그 논의 결과를 결론삼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는 기능적, 비기능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대부분의 노동요에는 시집살이 사실이 꺼어나오고 있는데 특히, 맷돌, 방아, 양태 같이 긴 시간을 요하는 작업에서 장형화되어 나타나고, 타령류나 잡가에도 나타나며 노동의 기능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성요는 노동의 지루함을 잊고 노동의 고통을 해소해줄 뿐만 아니라, 평민여성들의 자기표현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사촌성님요는 시집살이 노래의 전형으로 제주도의 전 지역에서 불려지고 있다. 시집살이 노래는 대개 2음보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이 노동의 박자와 가락에 지배를 받아서 율격적 변화를 보이기도 하고 후렴구를 동반하기도 한다. 독창으로 불려졌을 때 서사화가 잘 이루어지며, 노동요를 구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집살이노래가 불려지는 경우에는 소리꾼의 역량이나 소리꾼들의 조직에 따라서 선후창이나 교창으로도 불려진다. 이들은 강한 구연 상황에 따라 사회적 성격을 지니면서 전승, 변이된다.

(2)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는 서정민요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장시간 이어지는 작업상황에서는 서사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한다. 시집살이 노래를 서정과 서사 두 장르로 고찰함으로써 작품세계의 의미망을 찾고자 하였다. 이들 전개유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은 작중화자의 기대와 좌절이 반복 구조의 틀을 형성하고 있으며 순차적 전개과정을 밟고 있어 하나의 독립된 작품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3) 시집살이 노래는 표현상의 특징이 더욱 문학성을 돋보이게 한다. 제주

도 시집살이 노래에는 비유적 소재의 일상성과 구체성, 지역성을 반영하는 관용적 표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 비유적 소재들은 반복구조의 틀을 통해서 강한 현실풍자의 틀까지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나는 제주도 여성들의 미적 체험은 골계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현실비판의 구실을 해내고 있다. 육지의 시집살이 노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비극미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우아미는 골계미와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제주도 여성요에 나타나는 비판, 풍자의 식은 제주 여성의 미의식을 대변하는 것이다.

(4)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에는 육지와는 달리 시집식구와의 갈등을 노래하는 것이 적고, 첩과의 갈등을 노래하는 것들이 많다. 시집식구들과의 갈등이 적은 것은 결혼과 함께 분가하는 가족제도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첩과의 갈등을 노래하는 것이 많은 것은 축첩이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사회현상과 관습, 여다남소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나는 평민여성들의 정서는 현실을 체념하지 않고 부정과 대결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현실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현실을 부정함으로써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소산으로 보인다. 그런가하면 어려운 시집살이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새로운 삶을 희원하는 이어도 사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은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를 문학적으로 접근하면서 기능의 문제, 사실의 내용, 장르적 특성, 표현상의 특징 등에 대해 접근했고 특히, 여성문학의 범주로 다루어 평민여성문학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운율이나 형식분석, 가락과 사실과의 상관성 분석, 육지 노래와의 비교가 미흡했고, 다른 구전문학과 교류나 국문학의 다른 장르와의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의 보다 입체적인 연구를 위한 과제로 남긴다.

## 참 고 문 헌

### 〈자료집〉

- 「朝鮮民謠選」, 임화, 학예사, 1939.  
「朝鮮民謠集成」, 김사엽·최상수·방중현, 정음사, 1948.  
「朝鮮民謠研究」, 고정옥, 수선사, 1948.  
「濟州道民謠選」, 김영삼, 중앙문화사, 1958.  
「韓國民謠集」I, 임동권, 집문당, 1961.  
「濟州島民謠解說」, 홍정표, 성문사, 1963.  
「濟州島民謠研究」上, 김영돈, 일조각, 1965.  
「南國의 民謠」, 진성기,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韓國民謠集」II, 임동권, 집문당, 1974.  
「韓國民謠集」III, 임동권, 집문당, 1979.  
「學術調查報告書」7집, 제주대학교 국문과·국어교육과, 1982.  
「韓國口碑文學大系」,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韓國의 民俗音樂: 濟州島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學術調查報告書」8집, 제주대학교 국문과·국어교육과, 1984.  
「濟州道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제주도, 1986.  
「國文學報」8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6.  
「白鹿語文」1집, 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86, 87.  
「濟州島部落誌」I,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濟州島部落誌」II,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1.  
「제주의 마을」, 오성찬, 도서출판 반석, 1990.

### 〈저 서〉

- 김무현, 「한국노동민요론」, 집문당, 1986.



- ; 「한국민요문학론」, 집문당, 1987.
- 김용숙; 「한국여속사」, 민음사, 1989.
- 백기수; 「미학」, 서울대출판부, 1978.
- 성병희·임재해편저; 「한국민속학의 과제와 방법」, 정음사, 1986.
- 이교아규;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사, 1980.
- 이두현·장주근·이광규 공저; 「한국민속학개설」, 학연사, 1983.
- 임동권; 「한국민요연구」, 이우출판사, 1980.
- ; 「한국부요연구」, 집문당, 1982.
- 임재해편; 「한국의 민속예술」, 문학과지성사, 1988.
- 정덕순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2.
-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출판부, 1983(중보판).
- ; 「우리문학과와의 만남」, 홍성사, 1978.
- ;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0.
- 조홍윤외; 「민족예술의 이해」, 민족문화사, 1990.
- 최재석;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1982.
- ;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1979.
- 최철 편저; 「한국민요론」, 집문당, 1986.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플 헤르나디(김준오옮김); 「장르론」, 문장, 1983.
-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편; 「국어군문학사전」, 신구문화사, 1970.
- 「세계문예대사전」, 서음출판사, 1983.

〈논 문〉

- 강동학; 「서사민요 각편구성의 일면」, 「도남학보」5, 1982.
- 김영돈; 「제주도민요에 나타난 비유법수사」, 「국어국문학」22, 1960.
- ; 「제주도민요개관」, 「국어국문학연감」, 이우출판사, 1977.
- ; 「제주도민요에 드러난 생활관」, 「지우 변시민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1978.

- 김학성; 「장르론의 반성과 전망」, 『도남학보』6.
- 나승만; 「음영민요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1983.
- 박영원; 「시집살이민요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6.
- 서영숙; 「시집살이 노래의 존재양상과 작품세계」,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1985.
- 양순필; 「유배한시에 나타난 현실인식」, 『玄谷 梁重海博士 華甲紀念論叢』, 1987.
- 이광규; 「민요에 비친 시집살이」, 『한국문화인류학』12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0.
- 이현수; 「한국부요에 표현된 여성미의식」, 조선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연구』 12, 1990.
- 임현도; 「한국민요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1974.
- 장관진; 「한국민요에 나타난 가족의식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논문, 1988.
- 장성진; 「시집살이요의 유형과 인물」, 『여성문제연구』13집,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84.
- 조동일; 「미적범주」, 『한국사상대계』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3.
- 좌혜경; 「민요의 전승변이」, 돌곶 김상선교수화갑기념논총 별책, 1990.
- 최재석; 「제주도의 첩제도」, 『아세아 여성연구』17집, 숙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78.

Summary

The Survey of Cheju island Sijibsariorae  
(The Folk Song about the married women's life with the family  
of her husband)

Just as literature gives us general truth of life through concrete reality, so folk song reflects experiences of our lives, which are directly linked to our lives through language. Folk song is not only literature of minjung(people) but a national literature because folk song has the cognition of language in common and has handed down orally. Specially there are a lot of women's song in Cheju island. A large number of folk song show us women's general lives. Sijibsariorae about the second life which was caused by women's marriage is an excellent works of literature for its sasol (words) is large in quantity and is of good quality.

This article shows us the function and an aspect of existence of Sijibsariorae which expresses frankly the lives of the common women in Cheju island. It will gives us its literary character and social consequence. The Summary is as follows.

(1) Cheju island Sijibsariorae has the song for labor and the song for amusements in common. Most of labor song has Sijibsariorae Sasŏl (words), for example a millstone, a mortar, the brim of Korean hat which take too long, are long and appeared in taryong (a ballad) and chappa (a popular song) and expresses their feelings in no relation with the function of labor. These women's songs made them forget the dullness of their labor and relieve them of their pains and satisfy their self-expression.

Sachonsongnmyo is a model of Sijibsarionrae. Sijibsariorae has been sung all over Cheju island. Its sasŏl (words) have been changed because the rhythm and a melody of their labor and accompanys a refrain. The song sung by one person be came epic, on the other hand, the songs by the first and second singings emphasize a ballad singer's ability. These folk songs have handed down or changed under the performance circumstances, having a social consequence.

(2) If Sijibsariorae is commanded by its melody, it is inclined to become lyrical. On the other hand, if the labor takes too long, it is prone to become epic. Therefore Sijibsariorae is regarded as two genres, and lyric and epic. We can see its structural feature through its type. Its structural feature forms the speaker's expectation and frustration has the frame of repeated structure and has been developed in order. All these things make Sijibsarionrae independent works of literature.

(3) It is the expressional feature that makes Sijibsariorae literary. Sijibsariorae uses usual and figurative material and has a lot of idiomatic expressins which reflects concreteness and regional quality. These figurative materials are inclined to become satiric through the frame of repeated structure. And humor is shown in Cheju island Sijibsariorae. Humor plays an important role in caustic criticism at their reality.

Cheju island epic folk song shows contrast to the epic folk song sung in the land in that tragic beauty does not appear in Cheju island folk song and gracious beauty and humors are linked together. The critical cognition represents the beauty cognition of Cheju island women.

(4) Most of Cheju island Sijibsariorae is related with a concubin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little folk songs which sing a conflict with her husband family member. It is on account of the social phenomenon,

that is to say, keeping a concubine, the following customs and social context.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women and a small number of men in those days.

The common women's emotion resulted from their production of strong will because they refused to accept their reality and tried to overcome contradiction. They didn't give up thier reality but did get over them through confrontation. This reflects their strong cognition of reality. They sometimes lament their difficult married life but they long for Iodo, which is the ideal island water for Chejudoians.

This article approches Cheju island Sijibsarinorae from the literary point of view and deal with it as the women's literature and light it up the common women's literature. The analysis of rhythm, its form, relation between sasol and melody, a comparative study for the folk songs of the land the exchange with any other oral literature, the contrast with any other genre are not been achieved. All these things will be left as the next survey.